

로마서 요약

제 1 부 하나님의 의의 계시 (1:1~8:39)

I. 문안과 하나님의 의 (1:1~17)

II. 죄론(하나님의 의의 필요성) (1:18~3:20)

1. 이방인의 죄 (1:18~32)
2. 유대인의 죄1 (2:1~16), 유대인의 죄2 (2:17~3:8)
3. 전 인류의 죄 (3:9~20)

III. 칭의론 (3:21~5:21)

1.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3:21~31)
2. 아브라함을 통한 의의 예증(행위, 할례, 율법, 믿음) (4:1~25)
3. 의의 결과(하나님과 화평, 환난 중에 기쁨,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 (5:1~11)
4. 의와 정죄의 대조 (5:12~21)

IV 성화 (6:1~8:39)

1. 성화와 죄 (6:1~23)
2. 성화와 율법 (7:1~25)
3. 성화와 성령 (8:1~39)

제 2 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변론 (9:1~11:36)

1. 이스라엘의 과거 (9:1~29)
2. 이스라엘의 현재 (9:30~10:21)
3. 이스라엘의 미래 (11:1~36)

제 3 부 하나님의 의의 적용 (12:1~16:27)

1.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 (12:1~21)
2. 권세, 이웃에 대한 의무 (13:1~14)
3. 자유의 원리 (14:1~23)
4. 자유의 실천 (15:1~13), 편지를 쓴 목적, 계획 (15:14~33)
5. 맺는 말 (16:1~27)

로마서 1:1~17

< 1:1~7 >

1. Identity가 분명해야 한다. 자기 정체성이 확고하면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순간에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사상누각처럼 허물어질 위험이 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비난에 좌우되지 않으려면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자기 정체성 확보를 위한 좋은 기초가 있다. 그러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가(1)?

예수 그리스도의 종: 종도 종 나름이지,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해볼 만한 것 아닐까? 누구의 종이나가 중요하다. 군대도 계급사회지만 계급보다 때로는 보직이 더 우선인 경우가 많다. 비행기 조종사가 아무리 계급이 높아도 비행코스는 관제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종이나 자유인이냐보다는 누구의 종이나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주인이 정말 좋으면 주인을 떠나서 자유인이 되기보다 차라리 귀를 꿰고 영원한 종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스스로 된 종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귀 꿰는 종이여야 한다.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주인으로 섬길만한 분을 만났다는 뜻이다. 여기서 '종'의 의미는 노예라기보다는 일꾼, 혹은 사역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겠다. 바울 시대에 로마에는 자유인보다 노예가 더 많았다. 종끼리 만나면 개인적인 능력보다는 누구의 종이나가 우열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사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므로 심부름꾼이나 비서라고 할까? 바울이 의미하는 바도 이것이다.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도의 의미로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비서도 비서 나름이지 우습게 보면 안 된다. 대통령의 비서는 어느 날 도지사나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종은 상황이나 장소가 바뀌면 사도가 되고 어느 날 온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 되기도 한다. 포철의 어느 회장님에게 밥해주는 아줌마가 있었다. 밥 해주는 아줌마? 할부로 대할 아줌마가 아니다. 과장대우를 했다던가 부장대우를 했다던가? 그 아줌마 덕분에 취직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란다.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돈이나 명예, 권력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든다. 문제는 일시적이어서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점이 약점이다. 영원과 비교하면 너무나 짧은 행복을 줄뿐이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은 육신적인 면에서 불행한 삶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혼이 누리는 만족은 남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다. 더구나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제도적으로 12사도에 들었던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강조하고 있다.

2.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삶의 목적인 셈이다. 기획, 시행, 완결에 이르기까지 1) 복음의 주관자는 누구이며, 2)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되었는가? 3) 복음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2)?

1) 주관자는 하나님: 구원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예수님이 귀하고 고마운 분인 것 이상으로 고맙고 고마운 분이시다.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성경 어디를 펴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 전달 방법은 선지자들로 하여금 미리 성경에 약속하셨던 것을 전함: 하나님께서 구원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다. 어느 날 꿈속에 나타나셔서 사람을 획 바꾸어놓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른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우리도 선지자가 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성경을 전해야 한다. 믿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3) 복음의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스도 없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다. 사회구원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영혼구원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한 후에 문화적인 사명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늘나라였지만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항상 돌아보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3.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본문은 그 분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하는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씨), 3)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말이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는 말이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란 말은 다스란의 오해가 있고 하지만 메시아를 의미한다(행 2:30).

영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음(4):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에덴에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은 생명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스스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증명하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당대 사람들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말씀이다. 선조들의 치열한 싸움 끝에 교리로 확립되고 우리는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은혜와 직분을 주신 자(5): 아마 바울만큼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도 드물 것이다.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던져버릴 수 있었다. 그렇게 좋아한 그 분이 자신에게 은혜와 직분을 주셨다고 믿었다. 이것이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다. 바울의 존재가치는 복음에 있고, 복음의 핵심은 '그의 아들(2절)'에 있다.

4.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불신자가 로마서를 읽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도전받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까?

예수를 그(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4)에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4절의 '인정되었으니'라는 말은 '확정되었으니' '선포되었으니'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 아무리 위대하다해도 어떻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불만을 품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위대한 선지자나 훌륭한 조상인 것은 인정한다.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나,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라는 것이다. 불신자들도 예수님을 세계 3대 성인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한다. 문제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싫단다. '택정함'이란 표현(1)도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차선의 답으로 생각된다.

5.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최대 사명으로 여기고 평생을 바쳤다. 그가 본 전도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본문의 표현으로 나타낸다면?

출발점: 그로 말미암아,

도착점: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분을 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최대 목적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 이름을 위하여'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 중심'인가?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는 대답이 틀린 것은 아닐지라도 '그 이름을 위하여'와 비교해 보라. 중심이 다르다. '예수가 지옥에 있다면 나는 지옥으로 가겠다'는 말을 남긴 루터는 우리와 비슷한가 아니면 바울과 비슷한가?

6. 로마서의 수신자는 '이방인 중에 있으면서(6) 그리스도의 것으로 로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7)라고 할 수 있다. 이방인이라는 말인가 유대인이라는 말인가?

이방인이라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이런 구분이 별 의미가 없음을 보여준다.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람과 짐승만큼의 차이가 있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차별을 둘 수 있느냐고 의아해 할 필요는 없다. 고대에 노예는 '말하는 도구'로 불렸던 점이나 흑인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비뚤어진 심성의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구별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

7. 우리말이 좋은 점이 많지만 인사말이 길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를 영어로는 간단하게 세 음절로 할 수 있고, '안녕히 가십시오'는 단음절로도 가능하다(Bye!).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말로 15음절이지만 이것을 영어로는 다섯 음절이면 가능하다. *Grace and Peace to you!* 멋지다! 이 인사가 구약의 히브리 인사와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있는가?

구약에는 'shalom' 즉 *Peace*만 사용했는데 신약에서는 *Grace*가 추가되었다. 우리는 그만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

8. 로마서의 서두에 해당하는 1~7절의 내용을 셋으로 나누어보자.

1) 저자(1, or 1~2), 2) 바울이 하는 일(2~5, or 3~6), 3) 수신자(6~7, or 7): 이 부분이 서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렇게 나누면 좋겠다. 다만 바울이 하는 일, 즉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느라고 서두가 길어진 셈이다.

< 1:8~17 >

9.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단다(8).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주님께서 오신다고 했는데(마 24:14) 이제 오셔도 되겠네?

온 세상, 땅 끝, 천하라는 말이 당시의 용법으로는 이방세계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도바울은 당대에 이미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어(골 1:23) 열매를 맺고 자라고 있다고 말한다(골 1:6). 비슷한 표현이 롬 10:18, 딤후전 3:16(만국)에도 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는 뜻이다. 이런 당대의 어법을 생각해보면 마 24:14의 '온 세상'을 오늘날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이해해서 지구의 모든 민족, 모든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주님은 오늘이라도 당장 오실 수 있다. 미전도 종족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은 아니다.

10. some에는 '어떤'이란 뜻과 '약간'이라는 뜻이 있는 것처럼 11절에는 해석을 달리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 어느 단어를 어떻게?

무슨 → 약간 (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다. 엄청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약한 표현을 해서야? 겸손한 표현이다. 대단한 능력을 지닌 분이 조금 은혜를 끼치고 싶다고 하는 셈이다.

11.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준단다(11). 사이비 부흥사들이나 하는 소리 아닌가? 좋게 봐줘도 너무 교방진 소리 아닌가?

개인적으로 나는 바울의 이런 교방집이 참 좋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바울은 이런 확신이 너무나 분명했다. 다만 본 적도 없는 로마의 성도들 중 일부에게 너무 교방져 보일까 싶어서 조금 자제하느라고 신령한 은사를 '조금' 나누어주고 싶다고 하는 것 같아 보인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겸손 외에(9번 참조)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 나눌 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함부로 쓰는 것이 문제다.

바울 외에는 감히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전 4:16, 11:1)고 말하면서 그럴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아주 위대한 사람이거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12. 로마의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가지 마음은?

감사(8) 감사한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인데 복음을 전한 자도 없이 스스로 교회가 생기고 자라났다는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다는 말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교회가 자라는 것만이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교회가 자라는 것 역시 기쁨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다. 자기 이름이나 자기 교회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자신들이 나서기 전에 저절로, 혹은 누군가가 교회를 세웠다면 이렇게 기뻐하지 않는다.

보고 싶음(11)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다는 것이 정설이다.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뛰는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13. 로마서의 대상자들은 이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6~8) 왜 또 복음을 전하고 싶다(15)고 하는가?

교고케 하려함(11) 스스로 자라난 교회에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고 싶은 심정이 오죽 했겠는가? 참된 복음의 기쁨을 아는 사람은 전하고 싶은 열심이 분명히 있다. 지난해 여름성경학교를 마치고 수요일 저녁 무렵에 교회로 돌아왔다. 급히 씻고 설교하러 갔더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피곤하실텐데 설교를 다른 분에게 맡기시지요' 한다. '내가 뒤에서 쉬는 것하고 설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더 좋아할 것 같으냐?'고 했더니 웃기만 한다. 할 말이 많은 늙둥이 전도사는 설교할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피곤이 문제가 아니다.

14.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어 했고 시도도 했지만 아직 가보지 못한 상태다.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15) 신령한 것을 함께 나누고 싶다(11) 선생님도 특별하게 공부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더 잘 가르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저런 애들을 제대로 한번 가르쳐 봤으면...' 한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10)' 기도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갔다. 토인비가 그랬다면가? 바울을 싣고 간 배는 유럽을 싣고 간 배였다고.

15. 바울은 복음을 예수에게 받았는데 왜 엉뚱한 자들에게 빛진 자라 하는가?

예수에게 받은 사랑을 표하는 방법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채권자의 뜻에 따라) 앞장서서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한 일을 맡기셨다(1)는 생각이 그로 하여금 모

든 사람에게 빛진 자로 여기게 하였으며 그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들었다. 열심히 노력하고도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했다고 고백할 수 있었다. 큰 사랑을 받았다는 인식 없이 모든 사람에게 빛진 자로 살기는 불가능하다. 우리의 겸손이나 봉사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에서 출발되어야 한다. 빛을 지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바울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우리는 복음의 채권자, 혹은 시혜자 노릇하고 있지는 않는가?

16. 좋은 스승이 제자에게 기쁨을 주는가? 좋은 학생이 선생님께 기쁨을 주는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는 서로에게 기쁨이 된다: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다(12).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나누어주고 싶은 것이 있었다(11). 자신에게도 기쁨이요,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배움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면 이런 기쁨이 너무나 크다.

17. 사진기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기를 설명하려면 무척 힘이 든다. '사람 그리는 기계'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없던 개념을 도입하려면 어려움이 많기 마련이다. 자유라는 개념이 없던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개념이 들어오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함부로 두들겨 패고도 '내 자유다'라고 했단다. 그러니까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식으로 추가 설명이 필요해진다. 믿음도 그런 것이다. 사람에게 없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개념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여 전하러니 의미가 혼동이 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17절을 잘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의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의 믿음이 있다는 말이다. 두 가지 믿음은 각각 어떤 믿음인가?

과정이나 수단으로서의 믿음(믿음으로):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수단이다. 믿기는 내가 믿고 교회에 나온 것도 내 발이 아니냐고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한 일을 비교해 보라. 하나님께서 다 해 놓으신 일을 받아들이는 그 단순한 일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완성된 상태로서의 믿음(믿음에): 구원 받을만한 자격, 혹은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믿음에 이르는 방법은 믿음뿐이다. 믿으라.

비유컨대 수영함(수단)으로 수영(목표)을 배운다. 바다 깊은 곳에 무조건 빠트려놓고 헤엄쳐서 나가라고 하면 수영을 빨리 배운다. 아무런 이론도 없이 그냥 밀어버린다. 좀 무식하긴 하지만 이게 수영으로 수영을 배우는 것이다.

18. 새로 생긴 작은 회사의 사원은 어디 가서 자신을 소개할 때 △△회사 사원 ○○입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게 어디에 있는 무슨 회사냐고 물으면 부끄럽기 때문이다. 지금도 복음 전하기가 부끄러운 판에 바울 시대에 사도는 변방의 신흥종교 전파자일뿐 알아줄 사람도 없던 시절이다. 요즈음 목사 ○○라고 소개하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16):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회사의 사원이란도 제품에 확신이 있는 경우에는 당당할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도 이런데 하물며 죽음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수단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다만, 교회의 현실이 성도들을 당당하게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좀 부끄럽기는 하다. 그러나 복음 자체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19.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17절)는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다.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 때마다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몇 번이나 살아서 힘을 발휘했을까?

세 번 - 하박국(원조: 함 2:4), 바울(롬 1:17; 히 10:38; 갈 3:11), 루터: 이제는 우리에게서 다시 한 번 살아나야 하지 않을까? '살리라'는 표현은 영어로 하면 'shall live'이다. 자신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화자(話者)의 의지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다'는 뜻이다.

로마서 1:18~3:20

롬 3:21절부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에 대한 묘사이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과 온갖 죄악의 목록이 나열되고 있다. 결론은 3:9~18처럼 '모두가 죄 아래 있다'는 선언이다.

로마서 1:18~32

1.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인간, 예수 이 셋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문은 이 중에서 어디에 설명의 중심이 있는가?

인간에 대하여(3:20절까지)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과 신성보다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1:18), 죄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3:9~12).

갑자기 이렇게 논조가 바뀌어버렸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내용이 이렇게 변하는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기 시작한다. 1:18절부터 3:20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묘사한다.

2. 본문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1:21),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1:28),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알고도 어기는 사람(1:32)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 하나님을 섬길 능력이 없는 한 종류의 인간밖에 없는 셈이다.

3.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1:20)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도 신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인가? 다음 질문을 따라서 정리해보자.

- 1)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 2)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경험이나, 지식을 말해보자.

인체의 신비, 자연의 신비, 신비의 세계... 이런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다. 창조자를 인정하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피하려는 심사에서 하는 말이 '위대한 자연'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충분히 만물 속에 계시하셨다. 만물을 유심히 살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발견할 수 있다(롬 38~41장, 42:1~6).

- 3)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음에도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나님을 발견하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능력이 없다. 머리로는 알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는 현상과 비슷하다. 꿈속에서 가위눌려 발버둥치는 것처럼. 이렇게 된 원인은 아담의 범죄 때문이다.

- 4)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다. 그 방법을 알게 된 우리는 황재를 한 셈이면서 동시에 이런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바울이 왜 평생을 그렇게 헌신했겠는가!

3번 질문의 정리: 이 단락의 강조점은 '하나님의 진노(1:18)'에 있다.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자신을 계시하셨음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본문이다. 롬 3:9에 따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바이다.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연계시도 범죄한 인생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당연하고 복음이 전해진 것은 엄청난 황재일 뿐이다. 선교적 차원에서 인간의 결단을 요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구약의 성도들은 명확하지는 않을지라도 예수의 그림자를 믿은 셈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행했던 모든 일들이 예수의 그림자이기 때문이다.

4.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은 '불경건'과 '불의'이다. 경건이란 '공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이다.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도 핑계할 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이다(19). 그럼에도 굳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당하는 진노다. 불의의 원인이 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사실은 엄

청년 배신의 행위이다.

5. 어떻게 하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으로 바꿀 수 있는가(23)?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상을 섬기는 행위는 곧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사람이나 금수와 버려지에게 돌리는 것이다.

6. 하나님을 잘 몰라도 지혜로운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22)?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놀라운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는가?

첨단 기술로 무장한 공장을 세우고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헬기를 타고 점쟁이 만나러 가고, 입시철이나 선거철이 되면 유명하다는 역술가는 여간한 백이 없이는 만나기도 어렵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반이 약한 곳에 고층 건물을 짓는 격이다. 무너질 때가 되면 허무하게 무너진다. 스스로 지혜가 있으나 우둔하게 된 표본이 아닐까? 편리하고 좋은 것이라고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 하늘에 구멍이 뚫어지고,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지구는 병들고...

7. 진지하게 살피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알기를 구하지 않으며,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진노를 내리시는가?

내버려두심(24, 26): 간섭하지 않고 버려두면 더 자유로워지는가? 그럴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좋은 일이 되겠지만 능력 없는 자에게 버려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어느 초보 운전자가 로타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몇 시간째 뱅뱅이를 돌았단다. 버려두서 될 일이 아니다.

8. 하나님을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으로 바꾼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자신이 금수와 버려지같은 존재로 바뀌어짐: 순리를 따르지 않고 역리를 따르게 되는 것의 대표적인 예로 동성연애를 들었을 뿐이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있어야 할 성적욕망이 엉뚱하게 동성사이에 있다는 것은 형벌이다. 다스려야 할 존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복을 비는 것도 마찬가지다.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길 때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9. 사형에 해당하는 죄목(29~31)에서 가장 가벼운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가?

수군수군하는 자: 여기 죄목들은 단순하게 수군거리는 행위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8절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가 결과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행태의 한 예일 뿐이다.

10. 본문(1:21~31)을 죄와 별로 나누어 보자. 29~31은 벌인가 죄인가?

죄: 21~23, 25, 28a 벌: 24, 26~27, 28b, 29~31

유기의 결과로 보면 벌이다!

11.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1:25c)이란 찬양이 왜 붙어 있을까?

바로 앞에 있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는 말에 대한 강한 반론이다: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바울에게는 우리가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진노 속의 죄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하고 싶은 속마음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으로 꼭 차 있다. 속마음을 잠시 돌린 셈이다.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라면 놀든지, 자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

말하는 내용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벗는 죄인'이지만 말하려는 내용은 새로운 의이다. 1장을 요약하면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수(禽獸): 날짐승과 기는 짐승, 유기(遺棄): 내어버림 (예, 시체유기, 직무유기)

로마서 2:1~16

1. 1장에서 언급된 죄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였다. 2장의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범죄하는 자(4, 13, 17):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구별, 정죄)하는 사람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한다(4).

2.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알기는 어렵지만 무언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층, 지도층의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던 유대인을 가리킬 수도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는 일이다: 남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1절). 가장 좋은 예가 나단이 찾아와서 비유를 들려주었을 때 다윗이 분개하면서 내린 판단이다(삼하 12장). 자기가 자기를 판단한다면 객관성이 떨어지지만 타인의 일인 줄 알고 판단한 것이라면 타당성이 아주 높은 것이다. 결국은 자신을 정죄하고(1),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4).

3. 바울은 그의 복음은 전하기 위하여 인간의 죄악부터 설명하고 있다(1:18~3:20). 1장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를 설명하고 있는 데 비하여 2장은 아마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 같다. 17절 이하의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그 앞부분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1) 축복이든 저주든 먼저 유대인에게(9~11)

2) 율법에 대한 언급(율법 없는 자에 대한 설명까지 포함): 율법이 없는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이야기라면 율법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동무,' '반동분자'라는 말이 튀어나오면 이복 사람이구나 하고 느끼는 것처럼.

3) 남을 판단하는 사람(1): 남을 판단하는 것은 유대인의 특징이다.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

4.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누구나 해야 되는 일 아닌가? 판단력이 흐려서 일을 그릇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서 판단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하다' '정죄하다'는 의미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백성이라는 식으로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가 택한 백성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을 상대로 선택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를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만큼 무서운 것이다.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구별하는 것'은 위험하다.

5. 자신이 지적하는 잘못과 똑같은 일을 자신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 그런 짓을 잘 할까?

아마 모를 것이다. 모르니까 계속하지! 사람이란 존재는 타인에 대하여 민감하고 자신에 대하여 둔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민주적인 연로가 차단된 대통령이 위험한 것이나 교인들의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목사가 큰 사고를 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상태가 되면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아내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남편은 어떻게 될까?

아마, 어설픈 운전자에게 욕을 하거나 자식에게 야단칠 때? 대체로 일방적으로 말을 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잘 일어난다. 가령, 교사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일방적으로 설교만 하고 그 반응을 전혀 살피지 않는 설교자들에 생기기 쉬운 현상이다.

6. 본문 4절을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에 괄호를 쳐보자.

'네가' 다음 '그의' 앞: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7. 하나님은 오해를 받을 만큼 인자하시다(4). 반면에 사람은? (對句법으로)
사람은 _____만큼 _____다.

사람은 회개하지 않을 만큼 고집이 세다(5). 혹은 사람은 심판받을 만큼 진노를 쌓는다.

8. 예전에 어머니들은 자식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일부러 생선의 꼬리와 머리통 부분을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머니는 여전히 머리통과 꼬리만 좋아한다고 하면서 생선의 몸통은 자기 자식에게만 준다면 얼마나 서운할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멸시하는 것이다. 남의 잘, 잘못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경

우가 왜 생길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4):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한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인데, 심판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 때문에(5): 이것도 답이 되고 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면에서 본다면 위의 답이 더 정확하다고 하겠다.

9. 앞장에서, 범죄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어 버려두셨다. 2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인내하심: 하나님을 안다고 하니까 기대감을 갖고 계시지만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진노의 날이 임하실 것이다(5).

10. 사람들의 재판원리는 '법대로'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 두 가지는(1~10에서) 무엇인가?

진리대로(2): 사람의 법은 상황에 따라, 대상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耳懸鈴鼻懸鈴)인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다.

행한대로(6): 달리 말하면 공의로 갚으신다는 말이다(6~10). 공의로우심은 정확하다는 말이다. 외모에 따라 판결이 굵지 않는다(11).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대단히 불리한 경고다. 유대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믿었는데... 외모 즉 혈통이 상관없다는 것이다. 미치겠네!

11. 하나님은 행한대로 보응하신단다(6). 그렇다면 행위가 중요한 것 아닌가?

6절의 행함은 그 다음의 '참고 선을 행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이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과 일치(↔진리를 좇지 아니함, 8절)하는 것이다(7절). 그러므로 '행함'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말이다. 즉,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행함은 믿는 것이다(바울식의 표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다(야고보식 표현).

12. 진리를 좇지 않는 사람은 당을 지어 불의를 좇는다(8절)고 말한다. 정당정치를 하지말라는 말인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과 반대 개념 즉 무리를 지어 사리사욕을 추구함을 말한다. 정당정치와 관계없는 것이다. 파당을 만들어 물을 흐리는 행위를 가리킨다.

13.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란과 곤고가 따르므로 잠간 좋은 일이 있어도 결국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얼굴 표정이 어둡다면 문제가 있다. 왜 그런가?

잠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소유할 사람들(10절)이기 때문이다: 비록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표정까지 어두워질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14.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는 표현이 벌써 세 번째다(1:16: 2:9: 10). 유대인은 헬라인보다 더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는 말인가?

그렇다: 선을 행할 경우에는 상을 먼저 받지만(9절) 악을 행하면 벌도 먼저 받는다(10절).

15.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외모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그리스도인이려면 전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16. 위에서 언급한 점이 있다고 해서 이 본문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란 이유는 무엇인가?

헬라인에 대한 언급이 두 번, 율법 없는 자에 대한 언급(14~15)도 있기 때문이다.

17.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모세의 위대함만큼 위대하고 소중한 것인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심판의 근거(12): 원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이었으며 삶을 위하여 준 것이다(겔 20:11, 13). 병을 고치는 약으로 준 것을 잘못 사용하여 사람을 잡은 셈이다.

18. 교회를 다니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어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대로 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율법 없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이방인(14절):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선하지만 결국은 스스로 세운 기준을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바울의 요지는 아무도 율법의 요구를 벗어날 수 없으며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다.

19.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첫 마디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했다.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했다. 그런데 바

울은 어떻게 '내 복음'이라고 말하는가(2:16, 16:25, 딤후 2:8)?

내가 전한 복음이란 뜻이다: 내가 전하긴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비서나 참모가 자기 생각대로 일을 다 해치우고 밑에 사장의 도장을 찍는 것이나 마찬가지? 만약 사장의 뜻과 다른 짓을 하고 그런다면 자신도 목이 잘릴 만큼 위험한 일이다. 흔히 바울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과 다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이 가르친 것이 예수의 가르침과 다른 것이 아니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전 11:1)'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과 가르침이 예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이 말은 자신의 사도직분에 대한 확신도 내포하고 있다.

우리도 내 생각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무심히 내뱉는 말조차 성경적이지요 그리스도 복음에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영어를 제대로 하려면 잠꼬대조차 영어로 할 만큼 시도때도 없이 영어를 사용해야 한다면? 잠꼬대조차 성경적이어야 할 정도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20.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까?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 심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로마서 2:17~3:8

1. '유대인이라 칭하는 너'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지식과 규모가 있는 자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인가? 두 가지를 지적해 보자.

1) **그릇된 자신감(자아도취)** 20절 끝에 '스스로 믿으니'라고 한다. 19~20은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스스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식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식은 있어야 하지만 그 지식이 자신을 미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잠 26:12). *noise*라는 영어단어에는 '소음'이란 뜻 외에 '(자칭)위대한 인물'이라는 뜻도 있다. 자신을 평가하는 데에는 정말로 인색해야 한다. 자신을 미완성인 존재라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완성되어 가는 존재이다.

2) **가르침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함(21~23)** 아무리 잘 가르쳐도 자신이 실천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은 힘을 잃어버린다. 가르치는 자는 솔선수범해야 한다. 실천할 능력도 없는 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지? 말씀을 듣는 자들은 전하는 자가 실천할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 아예 안 하는 것인지는 기막히게 알아본다.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표라도 내야 한다.

2.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17)이 어떻게 책망의 대상이 되는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책임의식은 없이 특권만 내세웠기 때문이다.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자기 학교 자랑만 일삼다가 학사경고 받은 꼴이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자랑하는 것은 어떨까? 자랑할 만할 것이다. 주변에 온갖 무리들이 다 물려줄 것이다. 그러나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면 나라를 망치게 될지 모른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데 책임의식 없이 자랑만 한다면 크게 일을 그르치게 된다.

3.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자가 어떻게 신사(신전)물건을 도적질할 수 있느냐(22절)는 것은 무엇을 질책하는 말인가?

더러운 탐심: 도둑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부정의 부정이므로 긍정이 될 수 있는가? 우상을 흠쳐서 녹여버리면 우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칭찬거리가 되는가? 훔치는 것도 나쁘지만 어디 훔칠 것이 없어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의 물건을 훔치느냐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 우상이 제거되었다는 결과보다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는 마음이 잘못이라는 말이다. 깨끗하지 못한 동기에 의해서 결과가 좋은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4. 하나님을 믿노라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십계명의 어느 계명 위반이라고 볼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삼 계명, 24)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온갖 부정부패에 그리스도인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귀한 말씀이 심각하게 오해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믿음은 행위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는 선한 행실이 필연적으로 따르게 마련이다.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행위는 나타나게 마련이다.

5. 자격증이나 졸업장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한 때 자격증 대여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회사나 건축현장에 유자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명의만 빌려주고 잇속을 행기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자격증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새로운 풍조가 생겨난다. 비유컨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요구한 것도 자격증보다는 실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바울이 유대인을 상대로 본문에서 거부한 자격증과 요구한 실력은 무엇인가?

거부한 자격증 = 할례(25c)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증이나 마찬가지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는 말은 '죽음을 당해도 싸다'는 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 유대인을 향하여 바울은 선전포고를 하는 셈이다. 자격증이 아니라 율법을 행함으로 실력을 보이라는 것이다.

요구한 실력 = 율법을 행하는 것(25a)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키던 형식적인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완성된 의미에서 율법의 준수'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완성한 율법을 행하는 것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예수 믿는 것'이다. 할례 없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격증은 없으나 자격증보다 더 훌륭한 실력을 소유한 격이다(26절). 자격증보다는 실력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6. 일전에 설교를 목사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평신도에게도 설교를 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복음과 상황'이란 기독교 잡지에 실려서 떠돌썩했던 적이 있다(2001년 9월호). 이런 주장이 생겨난 배경은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같은 교회 내에서 집사나 장로가 목

사보다 설교를 더 잘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실력도 더 낫다고 평가를 받으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본문에 비슷한 현상이 어디 있는가?

2:27절: 무할례자가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는 것. 비유컨대 제대로 노력하지 않은 목사가 바로 본문의 유대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격증(할례)을 받았고 교과서(율법)도 가진 유대인이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졸업장도 없는 무자격자에게 비판을 받는 셈인데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설교가 형편없다는 지적을 받으면 대체로 반발감부터 생긴다. 그래서 '너는 마귀의 새끼'라는 식으로 몰아 부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크기 때문에 지혜롭게 표현해야 한다. 그런 지적에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해서 훌륭한 설교자가 된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극히 드물다)

7.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한 예수님의 전례를 따라서 바울은 할례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할례는 표면적이고 육신에 행한 것이었다. 바울이 말하는 할례는 어떤 것이며 그 할례는 어떻게 받는가?

이면적이고 마음에 행한 것

법조문(의문)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뜻을 따르는 것(신령)이다(29절). 달리 말하면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는 셈이다. 이전에는 신분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실력이 중요한 시대다. 외형적이고, 격식이 중요하던 시대가 변하여 내면적이고 진실한 마음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발달할수록 법조문이 많아지겠지만 달리 보면 법이 지나치게 세밀하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가 각박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사회라는 증거다. 마음이 전달되지 않고 상식이 통하지 않아 일일이 법을 갖다 대야 해결이 되는 사회는 질이 낮은 사회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율법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사랑이어야 한다.

< 3:1~8 >

8. 바울은 어떤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두고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중이다. 이 본문에서 그 가상의 인물은 바울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다. 어떤 질문인가?

1) 유대인이나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1)? <2번 질문에서 설명>

2)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3)? 가령,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선생님이 잘못된 것 아닌가? <3번 질문에서 설명>

3)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으니 공로도 좀 있는 것 아닌가(5, 7-8)? <4번 질문에서>

9. 유대인들은 '선민'이란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그것도 소용없고, 할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수표처럼 여겼는데 그것도 소용이 없다고 하면 바울이 유대인의 자존심을 너무 심하게 상하게 한 것 아닌가?

잘못하여 소중한 보배를 깨뜨린 셈이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일이 많단다(2).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다. 영광스런 일이다. 존경하는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킬 때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그 심부름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도 신나는 법이다.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 두고 심부름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이런 말은 어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지 생각해 보라. 바울은 유대인의 유익이 많지만 한 가지 외에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다가 다른 문맥에서 말하고 만다(9:4-5).

10.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란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인가? 유대인들의 잘못인가? 시험 점수가 너무 낮으면 선생님이 출제를 잘못된 것 아닌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 사이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절대적 존재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성립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참 되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4). 인용한 구절은 다윗의 고백이다. 범죄한 다윗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고백하는 내용이다.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불신으로 실패했다라도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에서 약속을 이루신다. 그것을 설명하려고 뜯을 풀이고 있는 중이다.

11.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가롯 유다가 팔지 않았더라면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일을 도운 공로가 있는 것 아닌가?' 1)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2)이와 흡사한 본문의 주장은 무엇인가?

1) 뱀을 잡는 데에 사용한 지팡이를 고맙다고 방에 모시지는 않는다. 뱀의 피가 묻었다면 태우거나

버리는 법이다.

2) 우리가 불의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었으니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가(5)?

12. 영화 속의 악당은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한 악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악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는 것 아닌가? 아니라면 이 두 가지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인가?

절대적인 선은 상대나 배경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인간의 악함이 하나님을 더 선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전깃불을 몇 개 끈다고 태양이 더 밝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영화는 제 3자인 관객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관객이 따로 없다. 즉 영화의 최종 대상은 관객이지만 하나님의 최종 관심 대상은 인간이기 때문이다.

13.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기를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라고 가르친다'고 했단다(8). 이것은 심한 곡해요 오해다. 바울의 어떤 가르침이 이런 오해를 불러왔을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가르침이 도덕이나 율법을 폐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율법준수를 예수님께서 비판했을 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주장은 유대인들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아픔이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결과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5:20)다고 말한 것을 억지로 곡해하면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란 말이나?'고 하는 것이다. 말꼬리 잡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지금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 행위는 아무 상관이 없으므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오해이다. '자유'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합부로 남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오해이다.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필연적으로 행위가 따라오게 마련이다. 그러나 행위를 보고 믿음의 유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마 5:4)

로마서 3:9~31

1. 지금까지 이방인의 죄(1장)와 유대인의 죄(2~3:8)에 대해서 언급한 결론이 바로 9~20절이다. 이 결론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20): '다 죄 아래 있다'(9), '의인은 하나도 없다'(10)는 것도 결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말하는 속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이다.

2. '우리'(9절)는 헬라인을 가리키는가?

아마도 그리스도인: 두 번 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보면 제 3의 인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구나 이 편지의 대상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점, 이 부분이 이방인의 죄와 유대인의 죄를 언급한 1, 2장의 결론 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고 본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였다는 주장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3. 사람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렇게 변한다고 한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게 하고 그들이 가졌던 꿈을 가지게 하려고 애를 쓴다. 물론 효과는 미지수지만... 그런데 바울은 무슨 억하심정으로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참하게 묘사하는가(10~18)? 더구나 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줄뿐만 아니라 장밋빛 미래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지상천국을 이뤄 보려는 노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탑 사건이다. 그런 노력은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던 일이다. 그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최근의 사건이 제 1, 2차 세계대전이다. 인류가 장밋빛 미래의 꿈에 젖어 있을 때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것도 연속으로 두 번이나 일어난 후에야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자 또 새로운 희망에 부풀어 있다. 과학이 장래를 멋지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지만 그 희망보다 더 큰 위협을 동시에 주고 있다(AIDS, AI, 광우병). 우리의 희망이나 힘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은 허망하다. 하나님 없는 사람 말이다.

4. 사람이 이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사랑을 쏟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사람은 사랑 없이 살지 못하는 존재이다. 그러면 어디에 사랑을 쏟아야 하는가?

하나님께(11, 18절의 逆): 하나님을 통한 사랑을 사람에게 쏟으면 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인간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다음 방법은 개에게 사랑을 쏟는 것이다.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은 개는 사랑을 결코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선하게 대해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이요, 실망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5. 본문(19~20)에 따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심판의 근거로 주어진 것(죄를 깨닫게 함): 정말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었을까? 십계명의 서문은 십계명이 구원의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해이긴 하지만 처음 율법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비록 불완전한 것이요 그림자이었을지라도) 율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은혜의 복음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이 죄를 깨닫는 역할밖에 못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래도 유일한 소망이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현재 우리의 입장(은혜 아래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살 수 없겠지만(율법이 심판의 근거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사는 방법이 있었다.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의 처지가 그렇게 전락된 것이다. 트럭에 밀려 애물단지 신세가 되고 말았지만 한 때는 온 가족을 먹여 살리던 주인공이었던 낡은 리어카와 같은 모양이다. 한 때 바울에게 그렇게도 소중했던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렇게 변해버렸다. 현대자동차도 자신들이 처음으로 국산화 시켰던 포니를 비싸게 사들여 전시하고 있단다. 지금으로 보면 고물 중의 고물을!

6. 율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율법 아래 있는 자(19): 은혜 아래 있는 자는 더 이상 율법이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즉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와 율법은 전혀 상관이 없는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율법은 우리와 상관이 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고 하셨다. 율법이 주고자하는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율법을 주신 자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7.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누구인지 본문에서 근거를 찾아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심판 아래 둔다니(19). 율법을 받지 않

은 사람도 율법 아래 있다면 율법이 무엇인가? 좁은 의미로는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지만 넓게는 사람의 양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지식, 즉 일반 계시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원을 위한 인간의 온갖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본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준 것이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알고 노력하였다. 진짜 귀중한 선물은 공짜일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선생님께 천 마리의 종이학을 접어서 선물로 드렸는데 종이 값을 계산해서 현금으로 돌려주었다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값으로 계산(=구원을 위한 우리의 노력)하고 있다면 말이 될 일인가? 부모의 사랑도 값을 계산하지 못하거늘...

< 참고, 내용의 큰 변화가 3장 20절에서 일어난다 >

< 3:21~31 >

8. 친한 사이에 서로 알고 있는 일이라도 언급하고 싶지 않은 아픔이나 슬픔은 있는 법이다. 해결할 수 없는 아픔은 속심작만 하지 드러내지 않는 것이 서로 위하는 경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까지 잔인하다 싶을 정도로 인간의 죄성을 까발려 놓았다. 왜 그랬을까?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다. 율법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21) 전혀 대책이 없으면 암환자에게 자신의 병이 암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가 되었거나 이겨낼 만한 의지가 있다고 보이면 알려주어서 대처하도록 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통하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아무 해결책이 없으면 이웃의 흠을 들추어내지 말지어다. 이런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약점을 철저히 까발린 것이다(1:18~3:20).

9.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며 각종 절기를 지켰다. 그 모든 일들이 자체적으로 무슨 신통력을 지닌 것이 아니라 ()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있었다. 그런 예를 한 가지라도 들어보라.

예수: 제사의 희생제물은 예수의 희생을 가리키는 것이며 유월절에 뿌린 피도 예수의 피이다. 안식일도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보기를 심히 원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요 8:56). 구약(=율법과 선지자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구약은 무용지물이다. 예수를 믿지 않고 구약을 경전으로 받드는 유대인들은 사실은 오리무중 속에서 헤매는 셈이다. 가령, 창 3:15절의 의미를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한다. 황금으로 된 짐이 왜 모래땅에 서 있는지,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는데 왜 바로가 벌을 받는지... 예수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본문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10. 차별이 없다(22)는 것은 이전에는 차별이 있었다는 말인데?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취급도 하지 않았다. 이제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것은 흑인노예와 백인주인 만큼의 차별이 없어졌다는 셈인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자. 이런 차별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는지. 빈부의 차이, 교육받은 정도의 차이... 이런 차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증거이다.

11. 일을 열심히 하면 월급을 준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일하지 않아도 월급을 주겠으니 회사에 들어오기만 하라 하면 들어갈까? 말까? 이 질문은 어느 구절과 관련이 있는가?

22절의 '믿음으로', 혹은 24절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와 관련.

들어오는 사람은 별로 없고 대부분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은 이와 비슷하다. 누가 들어올까? 아무래도 똑똑한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고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마 11:25) 하셨다. 우리는 많은 월급을 줄 것이라고 믿고 들어와서 열심히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건 일이 아니다. 노는 것이지. 일이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을 가능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능력이 전혀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일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일 뿐이다.

12. 얼마를 잃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은 것을 잃은 사람이 아니다. 정작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원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잃어버린 채 길어야 100년도 못되는 찰나의 행복에 온갖 정열을 다 쏟고 있다.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빼앗아 가버린,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잃어버린 엄청난 것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의 영광(23): 노름꾼이 돈을 얼마 잃었다고 속상해하고 있을 때 정작 잃어버린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건강, 명예, 가족의 사랑일 것이다.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은 낙원이요, 하나님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13. 救贖을 拘束으로 잘못 읽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구속의 뜻이 무엇인가?

값을 주고 구하여 낸다: 결국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보기에는 거저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값을 지불한 것이다(아래 질문 참조). 개정성경에서는 이 말을 속량으로 바꾸어버렸다. 종을 위하여 값을 주고 양민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14. 값없이 얻은 것은 보통 싸구려가 많은데 우리가 거저 받은 것은 어떤가?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우리 입장에서 값없는 것이지 실제로 가장 비싼 값을 치루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구원은 결코 값싼 싸구려가 아니다. 엄청난 댓가를 지불한 것이며 아무에게나 마구 던지는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이 큰 복은 '어린이처럼 믿는 모든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다. 마 18장에서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둔 종이 왕패 빚진 것은 일만 달란트였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삤이다.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이다. 그러니까 20년 임금인 셈이다. 평생 쓰지 않고 모으면 2~3달란트 모을 수 있겠다. 그런데 일만 달란트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 당시 유대 전국의 1년 세금 총액이 800달란트였다고 한다. 예수님께서 이런 거액을 언급하신 것은 그것이 독생자의 몸값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5. 다투고 화해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술 한잔하자'는 말이다. 한잔하면서 헛소리를 좀 하고 나면 감정이 풀린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어떻게 화해를 청하셨는가?

독생자 예수가 대신 죽었으니 믿겠느냐고 물으신다: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25).

16. 본문에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

율법과 선지자(21):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것을 뜻하는 말이다.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란 말은 구약 성경의 최종 목표가 율법과 선지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17.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용서하고 없던 일로 하면 간단할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하는가?

의로우심 때문이다.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패는 주먹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대학교수는 부부싸움도 토론과 논리로 한다. 사람을 하나님과 대등한 인격으로 만들어 교제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 용서하지 못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체면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체면 대 체면이 마주치듯이 인격과 인격의 만남으로 해결하시려는 것이다. 그냥 간단히 부수고 새로 만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합부로 관계가 손상되지도 않지만 한번 손상을 입으면 쉽게 복원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18.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그냥 눈감아 주는 법은 없다. 그런데 어떻게 '전에 지은 죄를 간과(25)하시는가? 看過란 깊이 관심을 두지 않고 대강 보아 넘긴다는 말이니 흔히 하는 말로 '눈감아 주시는 것' 아닌가?

화목제물 없이 눈감아주면 의롭지 못하지만 화목제물을 보고 눈을 감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눈감아 준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눈감아 준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을 위하여 길이 참으셨음도 잊지 말자.

19.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사모했다(막 7장).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귀신들린 딸을 충분히 고칠 수 있었다. 아니, 부스러기라고 얕잡아 보거나 효력이 적은 것이 결코 아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부스러기이다. 왜 그럴까?

우리의 의롭다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시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주어진 것이다(25~26):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것이라면 부스러기조차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의 처신에 따라 취소되거나 무시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일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시 23:3, 106:8). 주기도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가 바로 이런 것 아닐까?

20. 행위로 의롭게 된다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자랑할 수 없다(27).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원을 얻었다'라고 자랑하면 안 되나?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외친다면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감사'이다. '믿음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라는 뜻이다. 이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자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말을 하나님께 할 수는 없으니 자랑할 데가 없는 것이다.

21.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노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노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29) 이 문장에는 우리 말 어법으로 어색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다. 자연스럽게 고쳐보자. 번역된 성경은 원문의 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칠 수 있다. 그것은 말솜에 더하거나 빼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노 →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노? 선민 사상으로 무장된 유대인에게는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인 말이다.

22. 왜 갑자기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강조할까? 30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의미는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의미에 강조점이 있는 표현일까?

같은 하나님이란 뜻이다: *We are of an age*란 말은 '하나의 나이'가 아니라 '같은 나이'라는 말이다.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이나 이방인이 섬기는 하나님은 별개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 할례자나 무할례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분도 여전히 같은 분이시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다 같은 방식,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23. 우리는 더 이상 죄 용서를 받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율법은 폐지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고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가장 훌륭한 제물을 드린 셈이다. 그래서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운다(31).

로마서 4 장

1. 아브라함과 다윗을 왜 등장시키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고향을 떠난 것이나 아들을 바친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단이냐고 우긴다. 이런 가르침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본받자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바울이 이런 예를 들지 않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이런 행위조차도 믿음의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해당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기 바란다.

2.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 행위인가 믿음인가라는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가?

창 15:6: 소돔과 고모라의 사로잡힌 자를 다 되찾은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다. 행함을 강조하는 약 2:23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행함을 강조한다.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같은 구절을 야고보는 어떻게 행함을 강조하는 구절로 이용하였는가? '믿음으로만 아니니라'고 함으로서 믿음 없이 행함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엡 2:24) '응하였고'라는 표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중에 행함으로 증명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창 17:9: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99세 때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후 10여 년이 지난 때이다. 그러므로 할례라는 행위로 의로워진 것이 아니다.

창 17:5, 15:5: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믿음)도 율법(행함)이 주어지기 전에 있었다.

3. 원어상, 1절의 '육신으로'라는 말이 무엇을 수식하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육신으로' 조상된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여기 바울의 주장과 문맥이 맞지 않는다. 달리 읽는다면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 난하주를 참고해서 다시 읽어보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무엇을 얻었는가? 믿음으로 얻은 것은 있어도 육체로는 얻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분명히 자신들의 육체를 통해서 태어난 이삭조차도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자녀, 즉 자신들의 능력으로 낳은 자녀가 아니라는 뜻)라고 한다. 우리라는 말이 반드시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므로(3:9) 이렇게 고쳐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4. 2절 끝 부분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에 생략된 말을 다 보충하면 어떻게 되나?

(행위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5.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를 어떤 사람에 비유하고 있는가?

일하지 않고 샅을 받은 자(4~8): 경건치 않음에도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자요, 죄가 있음에도 죄 없다고 인정받은 자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씀하셨다. 어린아이는 놀고먹는 자이다. 일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자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결국은 일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드리는 '놀이'일 뿐이다.

6. 일하는 자는 샅을 왜 빗으로 여기는가?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월급을 은혜로 여길 줄 안다면 세상이 얼마나 즐거울까? 은혜는커녕 툴 받은 빗으로 여기는데 노사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7. 믿음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할례와 무할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례와 구원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의 예를 든 것은 그가 할례받기 20년 쯤 전에(창 15:6→17:25, 12:4, 16:16)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힘으로 할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할례무용론인 셈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말이다!

8.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식 때 행한 결혼서약인가? 그 대답과 본문의 할례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결혼식 때의 서약보다는 처음 청혼을 받았을 때의 약속이나 남몰래 두 사람이 약속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한 마디를 평생토록 지키는 것이다. 결혼식 때의 서약은 두 사람만의 비밀한 약속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일일뿐이다. 할례가 바로 그런 표라는 것이다. 두 사람만의 내밀한 약속이 바로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라면 결혼서약은 나중에 '인친 것'이다(11).

9.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10)? 란 표현은 원문을 직역한 것이므로 문맥이 자연스럽지 못해도 한글 성경의 번역을 탓할 일이 아니다. 대답을 참고하면 이 질문의 의미를 알 수 있다. 좀

쉬운 표현으로 질문을 바꾸어 보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10.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여겼다. 같은 혈통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절묘하게 아브라함을 이방인들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아브라함과 이방인 사이에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아브라함을 이방인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점: 그야말로 절묘한 설명이다.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믿음 안에서 더 이상 혈통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반가운 것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한 것이다. 신분, 재산, 외모...에 대해서는 너그럽자. 그러다보니 예수쟁이들은 저희들끼리 너무 친하게 지낸다고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단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쩌랴? 백조는 백조끼리 놀아야 마음이 편한 걸! 백조가 아니라고 비난할 것도 아니다. 백조가 되는 정말 쉬운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11.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무할례자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양쪽의 조상이라고 말한다(11, 12, 16d): 초대교회에서 할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같이 소중한 것이었는데 복음 안에서 그 의미를 잃어버렸다. 바울의 주장대로라면 할례를 전혀 무시해버릴 만도 한데 할례자의 조상도 된다고 함으로 양쪽을 다 포용하고 있다. 아, 절묘!

12.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천국의 후사(상속인)라면 모르지만 어떻게 세상의 후사가 되나?

심판받을 세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를 가리킨다. 창 17:4-6의 표현을 빌린다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열국을 상속받은 자들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의 진정한 후사는 그리스도인이다.

13.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인가?

믿음뿐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무 것도 행한 것이 없다는 말이다(13, 6)

14.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15).' 율법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형편없는 처지로 전락해 버렸는가?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마이가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전거(처음에는 가마꾼없이 스스로 간다고 자행거라고 했단다)가 별로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지만 한 때는 '마누라는 빌려줘도 자전거(다음 시대에는 오토바이)는 빌려주지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 공부 잘 하면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는 약속도 공부를 잘 하는 학생에게는 은혜지만 못하는 학생에게는 짐이 되거나 그림의 떡이 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다. 율법 자체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이스라엘은 그것을 은혜로 받을만한 능력이 없었다. 능력도 안 되는 자들에게 왜 그런 선물을 주셨는가? 더 큰 은혜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15. 13~16절을 참고해서 ()에 알맞은 단어를 채워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이고,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라고 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자세히 보면 허점이 많다. 자신에게 그럴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만들었다.

언약(약속), 믿음, 은혜(공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공홀하심이 바로 구원의 방편이다.

16.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상속자가 되는 그것) 믿음으로 반응하는(믿는) 자를 상속자로 삼는 수밖에 없다(16). 시험을 치거나 검증을 하지 않고! 왜 그런가?

인생이 자력으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15): 율법이 진노를 이룬다는 말 씀도 같은 뜻이다. 능력 없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소용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 은혜가 믿음의 의로(행함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하겠다는) 나 타난 것이다.

17. 아브라함이 백 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19)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바울의 말이 맞는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아야 한다: 창 17:17에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웃은 것은 분명히 바울의 말과 달라 보인다. 그러나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믿었을까? 베드로는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떨기나무 아래서 못하겠다고 버티던 모세에게는 믿음이 없는

걸까?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그 때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없었을까?

바울의 결론은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말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위(변동이 심한)가 아니라 내면적인 상태(변함이 없음)를 가리킨다. 믿음이 약해져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을까? 변함없는 내면의 사랑,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비록 육신이 약하여 행동을 이렇게 저렇게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한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18. 아브라함이 정말로 의심치 않은 것은 무엇이며 의심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인약의 성취: 자신의 몸에서 후사가 태어날 것과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는 말씀(창 15:5)은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는 좀 흔들렸던 모양이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확신을 심어주면서 이끌어 가셨다.

19.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을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25):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다는 뜻이다.

20.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뛰어들면 안 된다. 함께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뛰어 들어오셨다. 왜?

괴저내실 능력(죽음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죽음을 이겨내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분을 붙잡고 함께 부활한다. 그것을 가리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는 것이다.

로마서 5 장

1. '믿음으로 의롭다(1)'는 것을 4:4~8에서는 '일하지 않고 샅을 받은 것'으로 묘사했다. 본문에서는 또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는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5:9) 아무 피가 아니라 '그' 피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동시에 다른 분이 우리 대신 일을 해주셨다는 것이다. 그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린 것이다. 일본에서 자신을 희생한 청년 '이수현'에 대해서 일본 열도가 그렇게 감격스러워하면서 온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주신 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심한가!

2. 의롭게 된 자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또 무슨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즐거워하는 것(=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1, 2, 11) 사형선고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죄수가 무죄로 석방되어 나왔다고 생각해 보라. 이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 그렇게 기뻐 날뛰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은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슬퍼질까? 숙연해지고 눈물이 나도록 고마울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더구나 신분이 변하여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되었다! 성도는 하나님과 친한 사이이다. 단번에 드린 제사의 위력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 비록 이 땅에서 형편없는 모양으로 살고 있다 해도 장차 우리가 누릴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런 모습이다. 현실을 초월하는 장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정도만이라도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100년 미만의 삶과 영원한 삶, 개 한 마리가 무시워서 떠는 모습과 온 천지만물을 호령하는 모습을 대비시켜 보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가 상상이 될 것이다.

3. 진주는 진주조개의 몸 속에 생고 상처에서 생고다던가? 조개에게는 괴로움이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롱한 보석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가시밭의 백합화는 가시에 찔릴 때마다 향기를 토한다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성도는 환란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기에 환란도 즐거워해야 하는가?

소망을 이룸(3~4) 하나님의 영광스런 모습에 이르는 그 소망을 이루는 과정이라면 환란을 즐겁게 견딜 이유가 있다! 아무런 어려움도 힘든 과정도 없이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때 진주보다 더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스스로 이런 어려움을 즐기며 살자. 올림픽 메달을 바라보면서 온갖 고통을 감내하는 운동선수들보다 못해사야? 하나님 없는 자의 고통은 무의미하기에 더 고통스런 것이다. 젊은 날의 고생은 사서도 한가지만 그러면 노인네의 고통은? 애굽의 종살이도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철 풀무였다(왕상 8:51).

4. 환난, 인내, 연단은 연약한 우리 인생에게는 필수다. 언제 이런 훈련에서 벗어나게 될까?

죽든지, 예수님께서 오시든지: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훈련이라지만 너무 오래 간다. 이런 아픔이 있는 성도는 빨리 이 모든 어려움이 끝이 나기를 기다린다.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그런 사람일수록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견딜 수 있을 만큼 긴장이 우리의 삶을 더 활기차게 만든다.

5. 소망이 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가?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이 생긴 것이다. 그 사랑을 생각하면 세상의 이런 저런 비난이나 고통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누가 뭐라고 한들 신경 쓸 일이 없다. 누군가를 진짜 사랑해보라. 아무 것도 부끄럽지 않다. 더구나 그 소망은 확실한 소망이다. 하나님께서 기약대로(5) 이루셨기(6~11) 때문이다. 9, 10절에 '더욱'이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뜻이다.

6. 자신의 주군, 왕권을 위해 목숨을 버린 신승겸 장군과 자신의 부하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강재구 소령 중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들의 죽음과 비교하면 어떨까?

막상막하겠지만 신승겸 장군 쪽에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강재구 소령은 부하들을 훈련시키다가 실수로 수류탄이 뒤로 빠진 경우인데 이 때 자신이 피하고 부하들이 여럿 죽었다면 자신도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죽음으로 오히려 실수를 덮어버린 셈이다. 비록 실수로 인한 사고였지만 자신의 몸을 던져 여러 사람을 구해낸 것은 치하 받을 일임에는 틀림없다. 일본의 지하철에서 술 취한 사람을 구해내고 자신을 희생한 한국인 유학생 이수현은 한 수 위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야 할 마땅한 이유가 없음에도 자신을 희생시킨 점이 다르다. 의인이나 주군

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죽음이기에 더욱 감격스럽다(6~8). 동기 면에서도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래 전에 계획된 일이었다(6절의 '기약대로'). 영향력에 있어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 (6절의 연약이란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7.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10). 그러면 그 분의 살아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구원'을 '확실하게' 얻을 것(9~10): 화목하게 하신 것이나 구원을 얻는 것이나 같은 표현으로 보인다. 굳이 구분한다면 화목하게 하신 것은 구원(=완성)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할까? 여기서 강조점은 '덕'에 있다. 우리의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이다. 이 단어가 9, 10, 15, 17절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유의하자. 우리도 '확실하게'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육신도 함께 죽고(갈 5:24)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이다(롬 6:3~5).

8. 다시 정리해보자(1~11). 하나님께서 1)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2)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으며? 3)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일에 동참하는가? 4) 그 결과는 무엇인가?

1) 우리에게 대한 사랑(8), 2)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10), 3) 믿음으로(1), 4) 하나님과 화목(10)하고 즐거움을 누림

< 12~21 >

9. 바울은 아담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아담의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아담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12)' 이것도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이 아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구의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19):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말하기 위해서 대조적인 아담을 예로 들었을 뿐이다.

10. 어떤 것을 대조시키려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야 한다. 아담과 예수는 어떤 점에서 같으며 어떤 점에서 다른가?

같은 점(12~14): 모든 사람의 대표(한 사람의 행위가 모든 인류에 미침), 시조, 선구자

다른 점(15~17): 한 사람은 범죄한 대표(죽게 하고, 심판→정죄, 사망이 왕노릇), 다른 한 사람은 선한 대표(살게 하고, 은혜=선물→의롭다, 생명 안에서 왕 노릇)

11. 어린 아이는 잘못된 줄도 모르고 반복해서 잘못을 저지른다. 아이들의 실수나 잘못은 오히려 귀엽고 재미있다. 재미있다고 내버려두면 좋지 못한 버릇이 몸에 배일 수도 있다. 이럴 때 부모의 야단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아이들은 옳고 그름을 배운다. 구원역사에서 부모의 야단이나 가르침과 같은 역할을 맡은 것이 무엇인가?

율법(13): 율법 자체가 사람을 선하게 만들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 아닌지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다.

12.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14)는 말은 이들도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말이다.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일까? 왜 하필이면 모세까지일까?

'아담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적은 있지만 하나님께 죄짓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언제 하나님을 봤어야 하나님께 죄를 짓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들에게도 사망이 왔다(모세 이전에 죽은 사람들)는 것은 비록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께 범죄한 인생이었다는 뜻이다. 법을 몰랐다는 것이 무죄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그들은 모르고 죽었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알고 죽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이다.

13.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다면서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즉, 아담이 오실 자의 어떤 점과 닮았는가?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 아담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14. 15절은 복잡해서 읽기가 쉽지 않다. '이 은사는'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으로, '그 범죄'는 '아

답이 저지른 일'로 바꾸어 읽으면 쉽다. '더욱'은 끝 부분의 '넘쳤느니라'를 수식하는 말이다. 그리고 어느 한 부분에 괄호를 치면 읽기 쉽다. 어디에 괄호를 붙이면 좋을까?

'은혜와' 다음, '선물이' 앞에: '또는'은 *or*이 아니고 *and*이다(이런 걸 동격의 *or*이라고 하던가?) 현대인의 성경이나 새번역에서는 헛갈리지 않게 이 단어를 빼버렸다.

15. 하나님의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15), 하나님의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16)고 한다. 하나님의 은사는 아담의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어떻게 그런가?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룸이니라(16) 한 사람이 어지러운 것을 치우려면 여러 사람의 손이 필요하다. 패기는 쉽지만 만들기는 어렵다. 아담이 망쳐놓은 것을 바르게 고치려는 것이 훨씬 어려운 일임은 자명하다. 아담으로 말미암은 정죄보다는 모든 사람의 범죄를 의롭다 함에 이르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16절의 '많은 범죄를 인하여'라는 표현은 '많은 범죄를,' 혹은 '많은 범죄로부터'로 고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

16. 18절에 두 번 나오는 '많은 사람들' 원문상으로 '모든(παντας) 사람'이다. 15, 19절의 많은 사람도 말은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에서 제외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뜻일까?

여기서 강조점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의로워졌다는 데에 있다.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렸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요 3:16).

17.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죄나 율법의 역할이 아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20)'는 표현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13)'는 표현의 강조어법일 것이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죄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본론을 말하기 전에 언급하는 서론에 너무 관심을 깊이 가질 필요가 없다.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을 한 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 은사(15) 이 은사를 설명하려고 변죽을 울리고 있었다. 그래서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좀 과한 표현이 있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은혜와 선물도 같은 의미이겠지만 은사가 가장 먼저 사용되었다.

18. 아담은 귀가 가렵겠다. 한번 잘못했다고 말끝마다 자기 얘기니 말이다. 본문에만 아담의 귀를 솔게 만드는 표현이 몇 번인가? 잘못을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해도 문제가 없을까?

7번 (12, 14, 15, 16, 17, 18, 19)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에 한번 잘못을 계속해서 비난하는 것은 성격을 망쳐버릴 위험이 있다. 따끔하게 한 번으로 끝내야 한다. 여기서는 아담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대조적인 두 번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이다. 아담도 이해할 것이다!

19.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려함이라(20)

율법이 죄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뜻이다. 은혜의 시대가 되고보니 그렇더라는 말이다. 그마저도 없을 때는 죄인지조차도 몰랐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20. 다음 빈곳에 알맞은 대조적인 표현들을 본문에 있는 것으로 찾아보자(본문에 없는 것도 하나 있음).

1) 아담은 표상(대표적인 상징) ↔ _____(14)

2) 아담의 범죄 ↔ _____의 _____(14)

3) 선물 ↔ _____(16)

4) 정죄 ↔ _____(16)

5) 사망이 왕 노릇 ↔ _____(17)

6)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됨 ↔ _____(19)

7)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 _____(21, 17)

1) 아담은 표상(대표적인 상징) ↔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 (14)

2) 아담의 범죄 ↔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15)

3) 선물 ↔ 심판(16)

- 4) 정죄 ↔ 의롭다 하심(16)
- 5) 사망이 왕 노릇 ↔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왕 노릇(17)
- 6)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됨 ↔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됨(19)
- 7)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여(21, 17)

로마서 6 장

1. 다 같이 용서를 받았을 때는 죄 많은 자가 더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는 말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5장에서 말한 바울의 어떤 말에 대한 시비인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5:20): 이 말씀은 용서받은 자의 감격을 노래하는 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죄를 더 짓는 건데? 죄의 무서움과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 한 시간만 일하고 온종일 일한 사람과 함께 임금을 받는 것을 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늦게 오는 건데?' 주인의 고마움을 전혀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행위가 완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들먹이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애통하는 것이다.

2. 아주 친한 친구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심하게 다투었다가 오해임이 밝혀져서 화해하고 나니 비 온 뒤의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더욱 친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더욱 친하게 되었으니 한 번 더 싸우자면 어떻게 할까?

그런 일은 없다(1~2): 친구 사이의 싸움이란 것이 서로에게 얼마나 힘든 것임을 안다면 결코 싸우지 않는다. 군대가 남자를 사람 만드는 곳이라고 해도 사람 되려고 일부러 가야할 필요는 없다. 국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일 뿐이다. 죄라는 것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던 것이지 그로 인한 유익(?)이 있다고 고의로 더 저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3. 어느 날 죄가 나를 찾아와 유혹을 한다. 그래도 우리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단다.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기 때문이다(3): 개미가 개미를 위해서 죽는다면 희생적이라고 칭찬을 들을 수 있다. 인간이 개미를 위해서 죽는다면 미친 짓이다. 개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송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황송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죄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으려 할 것이다.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가 죽었음을 안다면 어떤 이유로든 죄를 지을 수 없다.

4. 죄를 많이 짓고 난 후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선 간증을 들으면 저렇게 확끈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가? 죄짓는 것이 확끈한 신앙생활에 필요조건인가? 본인에게 물어보면 무엇이 라 할까?

정작 본인은 결코 그러지 말라고 권한다. 비록 회개하고 돌아섰을지라도 과거의 그 삶이 미안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21). 미지근하게 보여도 방향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른다.

5.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강하다. 그러나 여기 본문은 아무래도 세례보다는 침례를 생각나게 한다. 왜 그런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4) 함께 부활함으로(5) 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것 같다. 세례의 의미는 단순하게 죄를 씻는 정도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세례는 공개적인 매장이요 공개적인 부활 축제이다(유해무 교수).

6. 죽음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장례 때에는 억지로라도 울게 한다. 눈물이 나지 않아도 나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장례식의 풍습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장례는 좀 다르다. 그리 슬프지 않다. 아니 어쩌면 즐거운 환송식일 수도 있다. 이 짧은 본문(6:1~11)에 죽음이 몇 번이나 언급되어 있으며 그렇게 많이 언급하면서도 분위기가 슬프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4(~17)번 정도(십자가에 못 박힘, 장사됨, 연합됨도 포함해서): 죽음 이야기로 도배한 것 같으나 당연히 죽어야 할 죄가 죽었고 대신 영광스런 부활이 있으므로 전혀 죽음이 슬프지 않다.

7. 시간 중에 졸던 아이들도 가수 이야기나 연애하던 이야기를 시작하면 눈이 말뚱말뚱해진다. 죽었던 아이들이 살아나는 셈이다. 공부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이야기에 대해서는 산 자인 셈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다.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가?

죄에 대하여 아무 반응이 없는 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담배값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흥미가 없다. 죄의 유혹에 전혀 무반응이다. 반면에 엉뚱한(?) 것에 엄청난 감동을 받는다. 하나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말뚱말뚱해진다. 군인들에게는 헌병이 대단히 두려운 존재이지만 민간인들에게 헌병은

그야말로 헌 병(*old bottle*)일 뿐이다(죄송! 어릴 때 이런 소리하면서 놀렸던 기억 때문에). 운전자는 교통순경을 보고 놀라지만 보행자는 아무렇지도 않다.

죄의 형벌이 없는 자: 비록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의 형벌이 없다. 죽은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죽은 사람에게 벌을 주려고 애를 쓰면 애만 더 달 뿐이다. 본문에서는 이 점이 더 중요한 것이다.

8.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당시에 형사 소송에서 사용되던 명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의 어떤 법률적 명제가 본문에 있을까? (참고 벨전 4:1) 1~11절에서 '죽은 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누구를 지칭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인용한 말이기 때문이다.

죽은 자는 무죄(7절): 7절의 죽은 자가 누구인지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가 인용한 명제이기 때문이다.

9.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나만 그런가?

그래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상의 변화를 말한다. 실제 모습은 그 신분에 어울리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잘못을 말한다.

10.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12~13). 그러나 그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11):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극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음을 믿고 먼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헛일이다. 우리의 노력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노력이 먼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도 자연스럽게 바뀐다. 사람은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여기느냐(*Identity*)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그런 의미에서의 자존심(자기존경심)은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바탕 위에서 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려는 노력이 따라야 한다.

11. 우리 몸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죄의 병기(도구)도 될 수 있고 의의 병기(도구)가 될 수 있다. 흔히 연약하여 자신의 선한 의사와 상관없이 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바울의 권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다. 이 말을 이미 범죄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은가?

형벌은 없다! 그래도 난 은혜 아래 있다. 그렇다고 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범죄할 수 없다. 정말인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혹 실수하는 수가 있다 해도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게(14)해야 한다. 실수하여 죄를 범한다 해도 여전히 의의 종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더 이상 죄가 나에게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다. 죄책감은 사람을 병들게 하는 끈질긴 질병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요, 용서받은 탕자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용서한 아버지 때문에 나를 비난하는 동배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버지 앞에서까지 당당하면 어떻게? 필요하다면 잘못도 기억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은 더더욱 잊어서는 안 된다.

12. 15절을 쉽게 이해하려면 이 말이 어느 구절과 의미가 같은지 찾아보면 된다. 어느 구절과 흡사한가?

6:1~2절: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다.

13. 바울 시대에 로마 시민 중에 자유인이 1/3, 종이 2/3이었다. 종의 운명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주인이 역적이면 종도 역적이 된다.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잘 만나면 그나마 인간 대접을 받는 것이고 주인을 잘못 만나면 짐승 대접도 못 받는 것이다. 종이라고 다 같은 처지가 아니라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인 것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인은 주인을 잘 만난 종인 셈인데 바울은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17): 필연적으로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의의 종이 되었다. 나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굴복하는 의미의 종이라기보다는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누리는 차원의 종이다. 스스로 귀를 꿰고 종이 되는 경우처럼.

14.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17)' 이 구절을 바울의 논지를 따라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믿음으로: '교훈'이나 '순종'이란 단어에 강조점을 두면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의의 종이 된 것처럼

틀릴 수도 있는 표현이다. 바울의 논지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15. 19절의 '육신이 연약하므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표현과 동일하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은 '정신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라면 바울의 이 표현은 무엇이 약하다는 말인가?

이해력 부족: 말을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다는 뜻이다. '사람의 예'라는 것은 어떤 주인의 종이 되느냐가 종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설명하는 내용이 어려운가, 쉬운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그 당시 독자들에게 그렇게도 어려운 말이었던 모양이다. 위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표현(3, 4, 5, 6, 8)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그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기 때문 아닐까?

16.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그냥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면 되지 하필이면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가? 이유는 이 두 가지 행위에는 대조적인 면도 있지만 유사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얼핏 보면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엄청나게 다른 또 다른 예를 본문에서 찾는다면?

19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사탄에게 종노릇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라는 것이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다르다. 사탄의 종노릇은 괴롭다. 하나님의 종노릇은 정말 행복하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런 예를 드는 것이다.

17. 자유란 참으로 좋은 것이다. 그러나 무질서의 상대개념으로 쓰일 때에는 나쁜 말이다. 이빨이 참으로 자유롭게 생겼네요? 가지런한 이빨이 아니라는 뜻이다. 질서를 따라야 할 경우의 자유는 나쁜 것이다. 의에 대하여 자유하면 무슨 열매를 맺는가?

사망(21):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는 말이다. 영어로 'free from ~'은 '~로부터의 자유'라고 직역되지만 실은 '~이 없는, ~와 상관없는'이란 뜻이다. free from the righteousness는 '의가 없는'이란 뜻이다. 소위 Franklin Roosevelt의 네 가지 자유란 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 freedom to worship God in our own way, freedom from want and freedom from fear 인데 이 때의 자유도 거의 비슷한 의미다.

18.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성격을 띠고 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혼재되어 있다. 본문의 어떤 모습과 유사한가?

죄에 대한 우리의 모습(13, 20):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럼에도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죽었음에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거룩한 존재이면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존재이며 성도이면서 날마다 성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이다.

19.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면 아무리 작은 것도 결코 작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런 경험을 서로 나누어 보자.

육군 행정학교 2달 교육기관 중에 만난 중대장이 그리스도인이었다. 진실해 보였다. 그 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것뿐이다. 당연히 해도 될 개인적인 부탁조차 하지 않았다. 개인적인 대화 한 마디 나누지 못한 채 두 달 만에 떠났다.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20여년이 지났음에도 그 분을 만난 감동은 아련히 살아있다. 단 한 가지 이유는 그 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이다. 빵 한 조각 얻어 먹은 것도 없는데 말이다.

40대 중반을 넘어서 신대원에 입학하고 몇 달 동안 내 마음은 근드리기만 하면 터질 것 같은 물풍선이었다. 동료들과 얘기 나누기조차 힘들었다.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다니...' 학교 처음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러지? 시간 시간이 은혜이었다. 마약에 취한들 이럴까 싶었다.

로마서 7 장

1. 율법의 효력은 사람이 살아 있을 동안만 미친다? 아닌데?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유효하고, 조선시대 이야기를 보면 남편이 죽은 후에도 효력이 있던데? 본문이 말하는 (율)법은 보편타당한 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아주 좁은 범위의 제한된 법조항이다. 3절의 '그 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법인가? 한계를 분명하고 그어보자.

유한한 인간의 법이고 남편에 대한 법이며 문화적으로는 당시 로마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죽고 사는 것과 상관없지만 유한한 사람의 법은 살아 있을 동안에만 유효하다. 남편에 대한 법은 남편이 없는 여자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죽은 남편에게까지 의무를 다 해야 하고 죽은 조상까지 산 사람 취급하는 우리나라 전통적인 개념과 비교하면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다!

2.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4) 말하자면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는 말인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4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믿음으로'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능한 대답이지만 그것을 가능케 한 근원을 감안하면 아무래도 전자가 좋아 보인다.

3. '율법과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남편이 죽은 아내'를 예로 들었는데(1~3) 어딘지 핀트가 어긋나 있어서 좀 헷갈린다. 이 두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는지 찾아보고,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해 보자.

율법과 성도의 관계에서 죽은 자는 성도이다. 반면, 바울이 든 예에서는 죽은 자가 남편(율법을 상징함)이다: 경우가 반대이기는 하지만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상대방에게 더 이상 매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비유가 좀 더 정확하게 되려면 아내가 죽어서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다른 세상에서 다른 좋은 남편을 얻는 것으로 했으면 좋았을텐데 현세의 법으로 설명하다보니 이렇게 된 모양이다. 성도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 다른 이 곧 죽었다가 살아난 자에게 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우리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기 위함이다(4). 열매란 말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여기서 열매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가? 문맥을 보라, 전도나 예배출석, 헌금, 교회봉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이다. 율법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을 가리킨다.

5. 과거에 죄의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했다는데(5), 사망을 위하여 맺은 열매란 무엇인가?

죄의 삯은 사망이라(7:23)는 말씀과 동일하다. 죄의 정욕에 매여서는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수사적인 표현일 뿐이다. 사망을 위한 열매가 죄의 정욕이 주는 사망을 가리킨다면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기본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6. 그리스도인의 생활원리는 무엇인가? '법대로 하자'는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인간관계가 다 깨어진 상태를 의미한다. 부부사이나 부자지간에 법대로 하자고 나서는 끝장난 상태다. 법을 좋아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 법(儀文의 묵은 것, 疑問이 아니다)을 버렸다. 대신에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영의 새로운 것(6):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새로운 원리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게 된다.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고, 인간의 도리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가 성도의 바탕이 된다.

7. 어떤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죄를 지은 것은 피고인의 손뿐이라고 하도 강조하자 재판장이 '손만 형무소에 5년을 가두라'고 선고를 했단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의 의수(義手)를 떼어놓고 당당히 재판정을 나왔단다. 법조항에만 집착하면서 그 법을 만든 의도를 전혀 무시한 예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법조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만든 하나님의 본래 뜻에 충실해야 한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는가?

6절: 영의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법을 말한다.

8.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라고 말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계속

저지른다. 잘못임을 가르쳐 주지 않았더라면 아무런 아픔도 없이 잘못을 저지를텐데, 이제는 아픔을 느끼면서 잘못을 저지른다. 깨닫고 행동을 돌이키면 좋으려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 경우에 잘못임을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인가? 이 사람은 본문의 누구와(혹은 무엇과) 같은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어도 계속 잘못하는 사람이 문제지 알려준 사람의 잘못이 아니다. 그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이 죄일 수 없다는 것이다(8). 전에는 모르고 죄를 지었고 이제는 의식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저지른다.

9. 그들이 저 있을 때에는 몰랐는데 햇빛이 비치자 방안이 온통 먼지투성이다. 햇빛이 죄냐? 결코 햇빛이 죄가 될 수 없다. 바울의 설명은 이와 비슷하다. 본문에서 먼지와 햇빛에 해당하는 각각 무엇인가?

햇빛은 율법, 먼지는 죄(8, 11, 13, 14, 17, 20, 21): 먼지를 일으킨 놈이 죄인이다! 그 먼지 일으킨 놈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햇빛이야 먼지만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10. 같은 물을 먹어도 독사는 독을 만들고, 장미는 꽃을 피우고, 소는 우유를 만든다. 물이 잘못이 아니라 마신 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 물을 본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율법: 율법이 선을 행하는 자는 선한 것으로 악을 행하는 자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한다. 처음에는 율법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율법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결국 육체 속에 거하는 내가 문제이고 내 속에 거하는 또 다른 나, 즉 나의 죄성이 문제이다.

11: 율법이 죄는커녕 오히려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고, 신령하다고 한다(12, 14, 16). 가치판단의 기준이라면 차라리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중립이라고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12. 예수를 만나기 전의 바울은 확신에 찬 바리새인이었다. 그 때 율법은 바울을 자신만만하게 만들어 주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 3:6)이었다. 거기에 비하면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18)는 것은 비명이다. 왜 이렇게 변해버렸는가?

문자적인 율법의 준수에 만족하다가 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것은 전혀 율법의 준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어도 율법의 정신까지는 만족시킬 수 없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13.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사람인가? 아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운동을 하거나, 일을 하면 피곤을 느끼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피곤을 느낀 후에도 빨리 회복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근거로 바울의 영적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자.

아주 건강한 사람이다: 전혀 유혹을 받지 않거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이외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 유혹을 받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다. 여기 바울의 이야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이라고? 예수를 만나기 전의 바울은 이런 류의 고민을 한 사람이 아니다. 성령충만 받기 전이라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아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라. 이것이 진정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사망의 몸에 대한 절망과 이것을 이기도록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한 감격이 동시에 존재한다. 아마 다른 데서 이 정도 현상이 나타나면 정신분열이라고 할 걸? 그래서 7~8장은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여준다(행 14:15, 약 5:17).

14. 결국 그리스도인은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에는 () 신고를 하고 은혜가 다스리는 세상에 () 신고를 한 사람들이다.

사망, 출생

15.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은 죄짓는 내가 나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율법은 선한 것이다.

16. 마지막 몇 구절을 보고 바울의 얼굴을 그린다면 어떤 얼굴을 그릴 수 있을까?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환하게 웃는 얼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웃음과 애통은 이런 것이다.

여기 바울의 비명이 바울의 아픔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혹은 회심 이전인가 회심 이후인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성도라도 육신을 바라보면 절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렇게 사는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17. 연속극은 다음 시간에도 시청자의 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지막 장면에 궁금증을 남긴다. 다음 프로에서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지 궁금해서 시청자를 끌어들이듯이 바울도 그러는 것 같다. 한마디 톡 던져놓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어느 부분인가?

25절 전반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8장에서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사망의 법: 로마의 법에는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묶어놓는 형벌이 있었다. 죽은 사람이 결국은 산 사람마저 죽게 만드는 것이다.

법칙(법)을 힘으로 이기려면 절대로 못 이긴다. 아무리 힘이 좋아도 결국은 중력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다른 힘으로 이겨야 한다. 가령, 부력이나 자력으로!

로마서 8:1~17

1. 1절의 '그러므로'는 7장의 몇 절과 연결시키면 좋을가? 1절과 연결되는 2절이 법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참고해서 생각해보자.

7:6절: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으니(7:1~6)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8:1). 잠시 옆으로 섰다가 다시 돌아오는 셈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이야기(7:1~6)를 하다가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7:7~24)를 잠시 언급한 셈이다. 그러므로 7장의 비참한 모습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다.

2. 치외법권이란 국회의원이거나 대통령이 소신껏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법의 소추를 받지 않는 권리이다. 더 넓은 범위의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외교관의 경우이다. 외국대사관은 영토는 우리나라에 있어도 우리나라의 법이 아무런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성도는 치외법권을 누리고 치외법권 지역에 살고 있는 셈이다. 본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법을 적용받고 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2절): 율법이 다스리는 세상 곧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천국 시민이다. 복한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외국 대사관에 들어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라. 한 발짝이라도 들어가면 더 이상 중국 공안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통쾌한 일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식이나 형벌의 두려움이 없다!

3. 정죄하는 것은 율법이지만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7:2) 정죄함이 없다. 또 다른 이유를 찾아보자.

새로운 법(예수 그리스도의 법)의 도래(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일제의 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던 죄인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르니 건국공신이 되는 것처럼 사람이나 행위는 그대로인데 잣대만 달라져서 생긴 변화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다(3~4): 율법의 요구를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이루시고라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란 죄지은 자는 죽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뜻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11):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이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의미하는 구절이 본문에 있는가?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3): '육신에 죄를 정했다'는 말은 육신에 죄를 선고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으심보다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라는 것 아닐까? '십자가에 죽으심'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의 일부요, 필연적인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심보다 더 충격적이고 감사하다.

5. 본문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어떤 인간이며, 어떤 차이가 있으며, 결과는 어떤가?

1) 육신을 좇는 인간(육신에 있는 자, 8)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을 추구하지만 결과는 사망이다.
2) 영을 좇는 인간(영에 있는 자, 9)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결과는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7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법' (계명)이다. 반면에 8장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성령'이다(19회, 영을 포함하면 21회). 법에 매인 인간이 7장에서 보듯이 비참하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다면 영적인 인간은 8장에서 보듯이 승리의 찬가를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다.

6. 대만은 일찍이 부정부패가 없는 나라로 알려졌다. 하루 아침에 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장개석 총통 시절인가? 법을 어긴 자기 머느리를 처형해버렸다. 이러니 어떻게 부정부패가 자리를 잡겠는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로 인해서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과 비교해볼 일이다. 비록, 중국대륙을 공산당에게 빼앗긴 장총통이지만 대만을 굳게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비교해본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죄없는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나라를 세운 분이시다: 혜택을 입은 우리로서는 입이 열 개가 아니라 수 백개가 있어도 감사와 찬양 외에는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합함을 알면 알수록 감사는 더욱 커지기만 한다.

7. 육신의 생각이란 먹는 것, 입는 것,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가(7~8)?

육신의 생각이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말한다. 생의 목표가 자기 자신에게 있거나, 육신의 만족에 있는 경우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영에 속한 성도가 먹고, 입고, 생육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문제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이다(히 11:6)

육신의 생각이 먹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면 영의 생각도 단순하게 형이상학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 우리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8. 열심히 헌금하고 전도하고 빠짐없이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는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할까?

그럴 수 있다. 그 열심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 즉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 어떤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사이에서도 잘해주는 데도 미운 경우가 있지 않은가!

9.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가 예수에게서 나오는 것인가?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9):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다. 내 속에 있기도 하고 성자 안에 있기도 하다. 신비로운 일이다. 동방교회(성령은 성부에게서)와 서방교회(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가 갈라진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10.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성령(그리스도의 영 혹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가 영에 속한 자이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그러면 육신의 지배 하에 있으면서도 신분은 영에 속한 자이다. 몸은 어차피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껍데기만 율법의 정죄함에 남겨두고 알맹이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셈이다(10). 나무껍질에 허물만 남겨둔 채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나는 매미처럼.

11. 우리의 육체는 죽어서 썩으면 형체도 남지 않는다. 그런데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11)는 말씀의 의미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자.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를 지닌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완전한 육체의 부활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모습이면서 예전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다.

12. 빛을 많이 진 사람의 태도를 크게 대별해보면 한 부류는 ‘배 짜라’ 형이다. 아예 갇을 생각도 없다. 또 한 부류는 빛지고는 못 사는 형이 있다. 어떻게든 갇아야 한다. 얼마 되지도 않는 벌금을 갚기 위해서 30년 가까운 세월을 매달린 할머니도 있었다. 우리도 빛진 자라고 한다(12). 무슨 빛이며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원래는 율법(육신)에게 빛이 있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갇아 버렸다. 이제는 그 분께 새로운 빛을 쬔다. 그러니 율법에게는 더 이상 빛이 없다. 때로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13). 즉, 육신에게 질 이유가 없다. 용서받은 탕자와 같은 배짱을 가져야 한다. 난 더 이상 율법의 소주를 받을 자가 아니라는 배짱이 있어야 한다. 그것을 가리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한다.

13. 종과 아들 중에 누가 말을 더 잘 듣는가? 왜 그런가?

종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들보다 더 순종한다. 아들은 경우에 따라서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수도 있다. 성도는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다.

14.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은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15):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친근함으로 하나님을 대하라는 것이다(아바, *abba*는 당시에 통용되던 아람어로 아버지를 부르는 어린아이의 말이다).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까마귀가 시끄럽게 소리지르는 것에서 파생된 단어다.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점잖게 부르짖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진정한 아들은 고난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대한 장래가 보장되어 있다.

15. 벤허라는 영화에서 노예이었던 주인공이 어느 날 귀족의 양자가 되어 모든 권한을 누리는 예를 볼 수 있다. 당시의 로마법에 따르면 양자는 친아들과 구별되지 않는다. 이전의 모든 신분이나 권리를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신분과 권리를 누리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요, 자녀이다. 우리의 현재 모습은 ‘자격은 없지만 양자가 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두 가지는 무엇인가?

후사, 고난(17): 후사는 그 분의 모든 것을 이어받을 신분을 말하며 그런 신분으로 이 땅에서 살려면 고난은 필수다.

로마서 8:18~39

<7-8장 요약> 하나님없는 우리의 현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다(7장).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희열을 맛볼 수 있다(8장).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가리키는 일이다. 장래의 소망은 우리를 행복에서 찢게 하지만 현실은 어렵기만 하다.

16. 피조물과 우리 인생이 공통으로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해방 = 영광(의 자유, 21):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사탄은 이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녀로 만드셨다. 자녀는 동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7. 사람들은 눈 앞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어야 한다. 무엇인가?

장차 나타날 영광(18): 장차 나타날 그 날만 바라고 사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탄식하는 현실에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 자신의 영광된 신분과 영광스러워질 그 모습(몸의 구속, 양자됨)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야 한다(17).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25).

18.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것(19)은 성도가 제 위치를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피조물이 왜 그것을 바라는가?

주인의 명예회복을 기다리는 종과 같다: 주인이 회복되면 종도 자동적으로 회복되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상태는 피조물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인간이 제 자리를 회복하면 피조물도 저절로 제자리를 찾기 때문이다. 사 11:6~9에 회복될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뎀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19.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거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이나, 탄식하며 고통하는 것(20)은 피조물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님을 말한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불쌍한 피조물 이야기는 왜 하는가?

피조물의 회복도 사람의 회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회복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회복될 인간의 이야기이다. 만물도 인간을 위해서 지어졌음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대표자로 창조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단순하게 좀 더 빨리 진화된 동물이 아니다.

20. 기다리는 것(23)은 몸의 속량이고 얻은 것(24)은 구원이란다. 같은 것 아닌가?

영적으로는 구원을 이미 얻었지만 온전한 구원은 장차(주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법적으로는 양자가 되어도 행동까지 그렇게 되기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것처럼! 혹은 아이가 탄생했으나 성숙하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미 완성된 개념과 장차 완성될 두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21.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물들도 함께 탄식하며 고대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참고 기다리자(25):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는 17절 말씀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어려울 수 있는 일이다.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런 모습을 그리며 인내하자(18).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기다리는 데...(22~23)

22.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에도 비길 수 없는 영광스런 소망이 있다. 이 소망을 만물도 탄식하며 기다리고, 성도들도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 소망이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점이다. 다음 글을 읽으면서 성령의 간구하심이 특별히 효력이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보자.

대통령의 심복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가장 큰 조건이 뭘까? 충성도 머리가 돌아가지 않으면 못한다.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을 읽어내는 심복은 때로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고의로 어기기도 한다.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고 게릴라적인 것이라는

정도까지 마음을 잃고 일이 잘못되면 대신 책임을 다 뒤집어 쓸 각오까지 하고 하는 짓이다. 이 정도는 돼야 심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27)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의 열심보다 뒤에서 도우시는 성령님 때문에 더 효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역사이기도 하다.

23.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를 본문을 근거로 해서 달리 표현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도 답이 되겠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제외)

현실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고 있는 사람(18)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다(17).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이다(25).

24. 롬 8:28절은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 중에 하나이다. 자신이 잘못하여 사람들에게 비난과 욕을 먹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는 생각은 오해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의 적용 대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적절한 고난은 감수하고 인내하고 양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했는데 착오로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결과는 선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이다. 따라서 특정한 대상없이 모든 사람에게 우연처럼 적용되는 '전화위복'이나 '고진감래'라는 말과 전혀 다른 말이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엉뚱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서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 구절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다른 구절을 적용해야 한다.

문맥을 따라 살펴본다면 이 구절은 성도의 개인적인 필요를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광스런 구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 시고야 만다는 데에 중점이 있다.

25.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선'(28)이 무엇일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서 그런 내용이 갑자기 끼어들 여지는 없다. 그러면 이 단락에서 변화를 의미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구원: 죽을 자가 산다(13),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15), 장차 우리에게 영광이 있다(18), 우리 몸의 소망을 기다린다(23),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24),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29), 영화롭게 하신다(30).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창 50:20)' 라는 말에서 '선'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

26. 다음 구절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일까?

<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8:29). >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이라고 한다. '미리 아신 자'에 관심을 두고 예정론에만 관심을 두는 것은 절차가 틀렸다. 그것은 나중의 일이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사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27. 구원의 8단계는 소명, 중생, 믿음과 회개,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한다. 이 중의 어느 단계가 본문에 나타나 있는가?

소명, 칭의, 영화(30): 이 8단계는 신학자에 따라서 9단계라고 하기도 하고 순서가 조금 바뀌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라는 점이다. 중생에서 성화까지 순서대로 진행된다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28. 우리의 구원은 만세 전에 예정된 것이다. 옳은 말이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전혀 없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 그렇게 할만한 ()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는 고백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고백이다. 예

정했을까 안 했을까 라는 생각은 우리의 몫이 아니다. 예정의 문제로 너무 머리 썩히지 말 일이다. 그저 감사하기만 하면 된다.

자유의지

29. '모든 것'이란 말이 두 번 쓰였는데(28, 32절)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 28절의 모든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32절의 모든 것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실수하거나 그릇 행한 것을 말하며 후자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의미한다.

30.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31) 그렇다면 바울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하지 않은가? 할 말이 없다고 해놓고 계속 말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다시 말하면 8장의 나머지 부분이 이 구절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누가 무슨 이의를 달겠느냐는 말을 반복할 뿐이다. 그런 다음에 할 수 있는 말은 감사뿐이다(35~39).

31. '누가 하리요?'라는 표현은 의문문이 아니다. 묻는 형식을 취하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방식이다. 몇 번 나오는가? 그래서 어쨌다는 말인가?

네 번(31, 33, 34, 35)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38~39): 비슷한 표현(우리가 ~, 어찌 ~)까지 다 포함하면 6번인 셈이다. 31~36절은 설의법 형식으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강조하다가 마지막 38~39에서 직설법으로 결론을 내린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32. 31~39절을 원고로, 웅변이나 혹은 설교를 한다면 어느 부분에서 목소리가 가장 높아지겠으며 어디서 가장 조용하게 낮추고 싶은가? 여러 군데를 지적해보자.

높은 곳: 여러 번 나오는 '누가'와 35절의 각 항목들, 35~36은 스타카토로.

낮은 곳: 37절과 39절의 마지막 부분, 가장 강조할 부분이지만 오히려 나지막한 소리가 더 호소력이 있어 보인다. 영혼을 사로잡는 소리는 포르테시모가 아니라 피아니시모이다. 엘리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33.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끝을 맺지만 현실이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한 마디로 도살할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현실은 35~36절이,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은 37~39절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두 부분을 가장 잘 요약한 표현을 8장에서 찾아보자.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18): 장래의 모습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현실 극복이 더욱 어렵다.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배가 덜 고프다. 장래에 대한 소망은 보증수표인 셈이다.

로마서 9 장

1. 우리말 성경은 롬 9:2을 1절과 구별하지 않았다. 원어는 영어처럼 뒤쪽에 오는 목적절을 2절로 구별했지만 우리말은 목적절이 중간에 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게 한 모양이다. 원어상 2절만 따로 구별해 보세요.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 이 부분이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핵심이다. 참말이고, 거짓이 아니며,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2. 앞 장에서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꺼지지 않는 불처럼 활활 타오를 것만 같은 바울이었는데 무슨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이스라엘의 구원: 하나님의 새로운 의,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감격을 외치다 보니 아직도 율법에 얽매인 동족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러면 바울은 괴로운 인생을 살았는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았는가? 평균하여 무덤덤한 삶이었던가? 그리스도인이 누릴 참된 행복은 마약을 먹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그런 행복이 아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면서도 다른 한 쪽에 이런 저런 아픔이 있다. 믿지 않는 형제와 이웃들에 대한 아픔이 있는 것이 정상이다. 단 맛이 진정으로 단 것은 쓴 맛이나 신 맛이 조금 포함되어 있을 때이다. 오미자가 그런가?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라고 노래한 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성도의 기쁨을 정말로 잘 표현한 노랫말이다. 한국 교회 역사가 겨우 100년임에도 너무나 큰 복을 받았다. 그런데 몰락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싶어서 두렵다. 이제는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

3. 흔히 맹세할 때 하늘을 두고 맹세하거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기도 한다. 바울은 맹세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말하는 태도는 그런 느낌이다. 바울이 맹세를 한다면 어디에 걸고 맹세를 하는 셈인가?

그리스도, 양심, 성령(1):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게를 지닌 말이다. 성경에 손을 얹고 온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거짓말하는 사람과 비길 바가 아니다. 우리의 말 한 마디도 천금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양심에 거리는 짓을 결코 하지 않았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는 정말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그리스도인의 한 마디는 천금보다 더 무게가 있어야 한다.

4.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것은 가장 저주받은 모습이다. 예수님이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외침에서 보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에 대한 고통이다. 엄청난 고통을 감수할 각오로, 자신이 버림을 받더라도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 사람은 여기 바울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인가?

모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때의 일이다(출 32:32). 자기 민족을 위한 바울의 이 고통의 결말은 롬 11:25~36에 있다.

5.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배신자로 낙인찍힌 인물이었다. 유대교의 수호천사였던 그가 기독교로 개종한 것만 해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개처럼 여겼던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한 것은 민족에 대한 반역이다. 그런 바울에게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고 비난한다면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했을까? 본문을 이용하여 바울의 답변을 찾아보자.

민족을 염려하는 나의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할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가 유대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4).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많이 받은 영광스런 민족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런 일인가!

6. 그리스도는 누구에게서 나셨는가?

이스라엘(공동체): 그리스도가 단순히 유대인이란 뜻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탄생에 유대인이 공헌한 것이 있다는 말인가? (설명은 7번을 참고)

7. 유대인이 다른 민족보다 나은 점 중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하나만 고른다면?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저희에게서 나셨다: 어느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확정된 후에 '우리 가문에서 대통령이 나왔다는 것만을 영광으로 여기지 무슨 덕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아 달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듣고 무척 감격했다. 나중에 그것이 입에 발린 소리였음을 알고 더욱 실망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는 소리였다는 비난만 듣고 말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다른 아이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쏟는 고아원 원장 부모를 원망하는 아들처럼 유대인들은 놀라운 특권을 받았음에도 알지 못한 셈이다.

8.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는데(6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가? 뒤이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을 증명하려는 예이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처럼 보여도 그 약속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 혈통을 따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너희가 참 이스라엘이요 약속의 상대방이 되었다는 것이다.

9. 법적으로 하자없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이삭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로 인정하셨다. 어떤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장자? 적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난 자(8): 이삭은 육신의 자녀라기보다는 약속의 자녀인 셈이다.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임을 인정 한 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은 아이니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처럼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받느냐 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10.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에게만 믿음이란 형태로 나타난다. 결국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단순한 고백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다고 믿음이 행위의 하나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다. 내면적이고 이면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따라서 누가 선택을 받았느냐를 따지는 것은 우리에게는 무의미하다. 다만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만 따지면 된다.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말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함을 고백하는 감사의 표시였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지금 믿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믿게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용 내지 남용하는 것이다. 지금 믿으면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을 실컷 혼이 나고 막판에 가서 ‘힘약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달라’고만 하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이 끝내 달라고 말하지 않으면?

11. 에서를 미워하셨다(13)는 말은 에서를 택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가? 이유도 없이?

같은 셈이다. 그러나 이유도 없이 그런 것은 아니다. 인용한 말라기 1: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허물어버리겠다고 하시고 역으로 에돔도 기를 쓰고 쌓으려는(=반항) 자세를 보인다.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이 잘 그려져 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랬으니 에서가 반항하는 것 아닌가? 시기에 구해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선후관계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

12.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역설하였음에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은 단순 반복이 아니다. 전자에 대한 설명에서 어떤 시비를 거는 사람의 말을 막으려는 의도일까?

이삭이 상속자가 된 것은 적자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려고: 가령, 야곱과 에서는 혈통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혈통과도 관계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이 인간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도 태어나기 전에 선택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있다(11).

13.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만 등장인물은 여섯이라고 할 수 있다. 공통점을 따라서 세 사람씩 묶는다면?

선택된 사람: 이삭, 야곱, 모세

버림받은 사람: 이스마엘, 에서,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숙명론이 아니다(시 5:4, 합 1:13, 약 1:13~14).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이지만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박케 하시기도 하지만(출 9:12, 10:1, 20, 27, 11:10, 14:4, 8, 17, 주의: 4:21, 7:3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일 뿐 실제로 행함은 아니다. 마음을 강박케 한 것은 바로가 먼저이었다), 바로가 스스로 강박한 것도 사실이다(출 7:13, 14, 22, 8:15, 19, 32, 9:7, 34, 13:15). 에서도 스스로 장자권을 경솔히 여겼다(창 25:34).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시키기까지 모든 사람에게 공물을 베푸실지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할 사람을 미리 아신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다는 것이나 선택해 두셨다는 것은 의미상 별 차이가 없다.

이런 하나님의 영역을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택임을 확인하는 셈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자유의지에 따라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행 17:30~31, 벰후 3:9, 신 30:19). 예서나 바로는 그것을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14.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달린다고 얻는 것도 아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이고 얻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되 그 노력이 전부가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게 하시는 분, 그로 인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 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 거지는 동전 접시를 앞에 놓고 땅만 쳐다보고 앉았고 다른 한 거지는 손님을 보고 손을 내밀었다. 누가 더 적선을 받을만한 공로가 있는가?

15. 두 가지 그릇이 있다.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귀히 쓸 그릇은 목사를 의미하고, 천히 쓸 그릇은 평신도인가?

핵심은 그릇의 종류가 아니다.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만들 권한이 있다는 말이다. 그릇의 종류야 두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 십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단지 두 가지만 예로 들었을 뿐이다. 만약 바울이 더 많은 예를 들었다면 더 많은 직분을 동원해서 짜 맞추는 것인가? 목사는 귀하고 평신도는 덜 귀하다는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 만인제사장이란 귀한 가르침이 이럴 때는 왜 힘이 없는가?

16. 또 다른 두 가지 그릇이 있다.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과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이 있다. 이 그릇들은 어떻게 될 처지인가?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멸하지 않고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는 것이다.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아낌없이 깨뜨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깨트리려고 토기를 만들지는 않는다.

영광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 분에 넘치도록 영광스러운 곳에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17. 바울이 토기장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본문을 인용하지 말고 자신의 표현으로 설명해보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것이라면 악인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이 지셔야 하는 것 아니냐(19절)는 항의에 대답하려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것을 미리 알고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에 대한 답인 셈이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바울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시다는 것이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만 이것만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답은 또 한 가지, 진짜 대답을 하기 위한 예비적인 답변이다.

이런 항의성 질문에 대한 진지한 대답은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기본 내키는 대로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잠시 접어두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다'는 것이다. 뒤이은 '관용하심'과 '부르심,' 그리고 10장의 '하나님의 의'가 바로 그것이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10:21). 비유컨대,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잘못하면 매를 댈 수 있다고 선언하고도 매를 들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과 같다.

18. 이삭은 왜 구원을 받았고 이스마엘은 왜 버림을 받았는가? 이삭은 적자이고 이스마엘은 서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야곱은 적자이고 에서는 서자인가? 야곱은 하나님에게 순종했고 에서는 순종하지 않았다. 정말 그럴까요?

구원의 이유를 이삭과 야곱에서 찾으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야곱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무식하고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도 찾아보기 어렵다.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서 찾아야 한다.

구원문제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볼러주심에 감사하는 것뿐이다: 비록 계시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불공평한 것처럼 보였을 지라도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이 비치듯 모든 이에게 주어지고 있다. 성도에게는 이 빛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다. 이 빛에 열음은 녹고 진흙은 굳어지듯이 받아들이는 사람과 배척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19. 정리하는 차원에서,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지 않으냐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1)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분을 망각한 질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기본적으로 우리는 항의하고 대들 형편이 아니다.

2) **인간의 처지를 잘 모르는 질문이다:**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튜브를 던지면서 잡기만 하면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었는데 공평하지 못하다고 힐문하는 사람이나, 많은 고아들 중에 한 아이를 양자로 삼았는데 공평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3)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되, 인간의 동역을 원하시기 때문이다.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셔서 대등한 교제를 원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절차는 꼭 필요하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하셨을지라도 마지막 선택만은 인간에게 맡기셨다. 이 은혜가 전하여지지 않은 곳에 먼저 받은 자가 전하여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식이다.

20. 토기장이처럼 절대적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호세아와 이사야의 예를 들면서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호세아의 글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 내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다가 다시 부를 때는 원래 내 백성이 아닌 자들까지 포함해서 부르셨다.

이사야의 글을 통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남고 자가 있다.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는 자다.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이 들기에는 충격적인 말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등장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사전조치인 셈이다.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믿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일지라도 믿고 돌아오기를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10:21).

21.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구원이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렸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그 단서가 될 만한 말을 찾아보라.

믿음(30, 32) 많은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주장을 펴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문제니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지 않는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은 성급하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므로 믿어야 한다. 새로 나타난 새로운 의를 입으라는 것이다. 믿는 것이 우리의 공로는 아니지만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다.

로마서 10 장

1. 무식한 게 용감하다는 말이 있다. 어쩌면 바울 자신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신의 모습은 용감하기 이를 데 없었지만 돌아보면 부끄럽기 그지없다. 다 무식한 탓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꼭 그런 자기를 닮아 보인다. 몇 절에 그런 말이 있는가?

2절: 유대인의 열심이야 대단하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다. 지식(지혜)없는 열심은 게으른 것보다 더 위험하다. 무식하면서 열심 있는 상사를 만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성경을 소중하게 품고 다니며 낙서는 물론이고 구겨질까 싶어서 접지도 않으면서 잘 읽지는 않는다. 노트 필기를 깨끗하게 하느라고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지 않는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판서를 잘못했다고 지우기라도 하면 난리가 난다. 열심은 있으나 지혜롭지 않은 학생이다.

2.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의로워진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등산에 비유해서 두 가지 점을 지적한다면?

길을 잘못 들었다(=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 유대인들이 몰랐던 하나님의 의는 자기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했다. 그것은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무 멀리 갔다(힘써, 3) 길을 잘못 들었다더라도 게을렀으면 돌아오기 쉬웠을 텐데 힘써서 멀리 갔으니... 그릇된 열심히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였다. 열심히 나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란 뜻이다.

3. 바늘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올라갈 수 있을까? 알 수도 없지만 알아도 아무 소용없는 질문이다. 이런 논쟁을 끝없이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면 좋을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는 사람(3) 유대인들의 논쟁 중에 안식일에 손수건을 갖고 다녀도 되는가라는 것이 있다. 결론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은 '일'에 해당하므로 안 되고 목에 걸고 다니는 것이나 소매에 꿰매어 다니는 것은 '입고' 다니므로 괜찮다는 것이다. 이런 답을 내려놓고 얼마나 자신의 지혜로움을 자랑스럽게 여겼을까?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의 하는 짓이 그렇다.

4. 마침표(.)는 언제, 어디에 찍는가? 그러면 4절의 '마침'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

완성(성취) 문장을 마친다 혹은 끝낸다는 것은 완성되었다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율법은 완성될 수 없다. 제사를 예로 든다면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죽음이 예수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 된다. 그리스도 없는 율법은 사랑없는 선물이나 마음에 없는 칭찬처럼 역겨운 것이다.

5. 모세가 기록하였다(5)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8:5)는 말씀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이 틀렸다는 말인가?

하나님은 이런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행위와 관계없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출 20:2). 이스라엘에게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을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했다. 그러면 이런 율법의 해석이 달라진다. 율법을 준행하면 살리라는 말씀들(느 9:29, 겔 20:11)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에 불과한 것이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못한다.

6.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것은 5절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말하는 것은 몇 절인가?

13절: 6~7절은 '영똥한 짓을 하지 말라'는 경고이고 8절이 대답이지만 내용이 어렵다. 그것을 쉽게 풀이한 것이 9절, 10절이고, 최종적인 결론이 13절이다.

7.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6). 이 의는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9). 그러므로 쓸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고 한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쓸데없는 노력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참고 신 30:11~14)

하늘에 올라가는 일과 음부에 내려가는 일: 마치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모셔와야 구원을 얻거나, 음부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살려와야 구원을 얻는 식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생명수나 사람을 살리는 명약을 구하러 가는 중국 무협지와 비교해 보라. 반면에 인용한 참고 구절을 보면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쉬운 것이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

에게 돌려 행하게 할꼬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돌려 행하게 할꼬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는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 30:11~14)

8.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며,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을 얻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어느 것이 먼저인가?

같다: 다음 문장들의 구조를 보라.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표현 양식이다. 같은 말로 네 번 반복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A: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B: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B: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A: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 '성경에 이르되'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인용했다는 말인데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11)는 말은 개역 성경의 간이 관주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 구약에서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문장을 어디서 봤더라?

롬 9:33: 바로 앞에서 본 표현이다. 사 49:23, 28:16, 율 2:26~27에서 문자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의미를 따온 것이다. 구약의 이 말씀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내용이다.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나니 이 구절이 바로 믿는 모든 자를 부르시는 의미인 것을 새삼스럽게 발견한 셈이다.

10.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설교가 적지 않은 현실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득력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그나마 단순하게 성경 구절을 나열하는 것이라도 고마울 때가 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중한 말씀을 증거하면서 본문에 구약을 몇 번이나 인용하고 있을까?

11번: 5(레 18:5), 6(신 30:12), 8(신 30:14), 11(사 49:23, 율 2:26~27), 13(율 2:32), 15(사 52:7), 16(사 53:1), 18(시 19:4), 19(신 32:21), 20(사 65:1), 21(사 65:2) 인용하고 있음을 표시하고 인용한 것은 7번(5, 11, 15, 16, 18, 19, 20)이므로 7번 이상이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성경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가? 그러니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는 어렵더라도 가끔 한 두 구절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떠오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겨우 생각나는 것이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마 5:29)인가?

11. 12~13절의 내용은 9장의 어떤 내용과 동일한가?

인내하는 포기장이: 12~13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없이 부요하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포기장이가 제 멋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과 대조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포기장이와 같지만 그 권한을 기본 내키는 대로 흔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요하시다'는 것이다. 전권을 가진 상사가 꾀발부리지 않고 인격적인 방법으로 부하 직원을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라. 직장생활하면서 서러움을 당해본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알거다.

12. 본문을 근거로 믿음에 이르는 과정(선교, 전도의 과정)을 정리해보자.

보내져야함(가야함) 전파, 들음, 믿음, 부름: 어떻게든지 가서 전하는 일은 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서 살든지 이것만은 늘 염두에 두어야 하는 일이다.

13. 16절은 번역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는 말은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관주로 제시된 롬 3:3, 히 4:2절과 차이가 있다. 조금만 고쳐보자.

영어로 말하면 *not all*의 의미로 부분 부정이다.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로 하면 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사야 53:1을 인용한 것도 그런 의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14. 우리말에 '들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단순한 '들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듣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18절의 '들음'은 어느 쪽인가?

단순한 들음이다: 온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만큼 할 것임을 의미한다(11:26).

15. 부족하지만 그래도 전하고 외치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아무 것이나 들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직 ()이어야 한다. 설교의 주제도 이것이어야 하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도 반드시 이것이어야 한다. 잠시 다른 경유지(윤리, 도덕, 상식, 성공의 비결 따위)를 거치는 수도 있겠지만 목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 여기서 말하는 들음은 일차적으로 설교를 가리킨다. 초대교회의 전도나 복음은 곧 설교를 뜻하는 것이다.

16.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하는 18~21절의 동사는 전부 과거형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말씀을 전했다(18), 시기하게 했다(19), 다가갔다(20),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11장을 참고): 히브리어 용법에 확실한 미래는 과거형으로 표시한다. 이 부분의 과거형을 미래형으로 해석해도 좋다는 뜻이다. 과거에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다.

로마서 11 장

1.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한 구절은 몇 절인지 세 군데를 지적한다면?

11, 25, 32: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결과적으로 이방인에게 풍성한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었다.

2. 앞장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은 과거사이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는 물음은 현재사를 말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말을 듣지 않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은 예를 두 가지 들고 있는 셈인데 무엇인가?

바울과 엘리야 시대의 7,000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려면 일찍 버렸지, 노아, 아브라함과 조상들을 선택하여 구원역사를 이루어 오신 분이 이제 와서 자기 백성을 버린다? 다 버렸다 해도 내가 있잖아!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나를 택하여 사도로 삼으신 것을 보라(1절)

3. 버리셨느냐? 아니!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가?

남겨두셨다(4~5):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셨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두 손을 벌리고 종일 기다리고 계신다(10:21). 집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눅 15). 이스라엘이 버려진 것 같아도 남겨진 이스라엘이 있다. 창조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도 약속을 주셨고, 모두가 부패해도 노아를 남기셨고, 그 다음 인류가 타락해도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이 또 부패해도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셨다. 끝내 독생자를 희생시키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얼마든지 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4.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다른 모든 민족을 버리신 것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여겼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는 말은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 7,000명을 통해서 나머지도 구원하려 하신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이방인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12).

5. 6절은 아무래도 지나는 길에 삽입한 말 같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바울의 애창곡이라서 기회만 있으면 부르는 것이다. 5절을 말하고 보니 그만 6절을 한 마디 더 한 것 같은데 바울은 자신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빌 3:6). 그런 그가 어떻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자신의 노력 때문이 아니다(고전 15:10). 아니, 어쩌면 잘못된 행동 때문인가? 잘못된 짓을 하고 있음에도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새로운 빛을 주신 그 사건이 아마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고 보니, 그것이 자신에게 우연히 된 사건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란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래서 말끝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까?

6.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7)는 말은 어느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인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6):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면 전부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사상을 뒤엎어버린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7. 7절부터 넘어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진다. 하나님이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셨다(8, 사 29:10)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비록 다윗이 '저희 밥상이 울무와 덧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굶게 하옵소서'(시 69편)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원인제공자가 이스라엘이다: 인용한 본문(사 29:10)의 문맥을 찾아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 29:13에 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의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사 29:14)고 하신다.

다윗의 글, 시편 69편은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된 구절이다. 성전청결(9절), 욕마르다고 하셨을 때의

신포도주(21), 유다대신 맛디아를 세울 때(25)에 인용되었다. 여기서 한 절만 인용할지라도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그만큼 잘 알려져 있어서 문제가 없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 세상이 비난을 퍼부으며 십자가에 못을 박듯이 이스라엘이 그러했기에 저희들에게 이런 비극이 닥친 것이라는 뜻이다.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다 해도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는 않는다(11).

8. 다시 정리해보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그렇지 않음을 길게 설명하는데(1~11) 이 답변을 간단한 세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렇 수 없느니라(1), 남은 자가 있다(5),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지는 않는다(11)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선다면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있을 것인가 라고 반문하고 있다(12c).

9. 바울이 열심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동족의 열마를 구하려는 의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여 그로 인해 다시 이스라엘의 열마를 구원하려함이다(11, 14). 이스라엘이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목격하게 되면 돌이키는 자가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불신 친척들을 구하려는 의도와 비슷하지 않을까?

10. ‘공부 안 해도 이 정돈데 만약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 ‘난리 나겠지!’ 바울이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 어디서?

12절과 15절, 24절: 자기 동족에 대한 애뜻함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나중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있다.

12절: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요,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라면 이스라엘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다면 얼마나 더 부요하겠느냐(충만함)는 것이다.

15절: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과 세상의 화목이 된다면 저희를 받아들이는 날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15).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24절: 돌감람나무를 가져다 좋은 나무에 접을 붙이는 판이니 원가지야 접을 붙인다면 얼마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느냐?(24) 그러니 너무 자궁하지 말라.

11. 처음 익은 곡식 가루의 일부를 가지고 제사를 드린 다음에 떡을 만든다. 가지는 뿌리에서 나온다. 그러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명이라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16)는 말은 무엇을 설명하려고 예를 든 것일까?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이니 자궁하지 말라: 처음 익은 곡식 가루와 뿌리가 조상들이라면 떡명이고 가지는 후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그 제사에 동참하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너희들이 거룩하다는 것은 그들이 거룩했기 때문이니 자궁하지 말라(18~24)고 하는 것이다.

12. 아들이 쫓겨난 집에 양자가 들어왔다. 이 양자가 쫓겨난 아들을 보고 ‘쫓겨날만 하니까 쫓겨난 것 아니냐?’고 하면 말이 맞는가?

말이야 맞지만 그러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자신은 그러면 안 된다. 오히려, 쫓겨난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을 돌아 보아야 한다. 이방인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말이다.

13.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21)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22). 하나님에게는 인자와 엄위가 있다(22). 잘못 걸리면 죽는다는 얘기 아냐?

하나님의 속성 중 ‘공의’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엄위의 대상이 되면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고 인자의 대상이 되면 살 수밖에 없다(22c). 인자의 대상이 되려면 믿기만 하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입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죄 없는 사람이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다.

14. 원예학의 입장에서 접붙임에 대한 비유가 실제와 맞지 않는 문제점을 세 가지 지적한다면 무엇인가?

좋은 가지를 구해서 접을 붙여야 한다: 돌감람나무 뿌리에 참감람나무 가지를 접을 붙여야 한다.

돌감람나무 가지를 참감람나무에 접을 붙이면 돌감람 열매가 맺힌다.

잘라낸 가지를 다시 그 나무에 접을 붙이는 법은 없다: 가만히 두면 같은 가지가 무수히 생겨나는 데 다시 접을 붙일 이유가 없다.

15. 위의 문제에서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음에도 실제와 다른 이런 비유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울이 접붙임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 아니면 고의일까?

좋은 뿌리 되신 그리스도가 구원 사역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좋은 가지이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뿌리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이란 점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뿌리이다. 우리를 통하여 무슨 선한 일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비슷한 예를 든다면 부정한 자나 물건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 단,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닿으면 예수님의 정함이 오히려 역으로 부정한 여인을 정하게 만들어 버렸다. 사 10:27절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과정에 기름진 목이 멍에를 부러뜨린다는 표현이 있다. 목에 살이 찌면 상처만 입는 것이 정상인데 거꾸로 멍에가 부러진다는 것도 구원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기름진 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핑계거리일 뿐이다.

16. 25절의 이스라엘과 26절의 이스라엘에 차이점이 있는가?

과거의 범죄한 이스라엘(25)과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26): 26절의 온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느냐는 것은 논란거리다. 많은 분들이 영적 이스라엘로 이해하고 있다.

이스라엘에 테러 사건이 일어나 한 두 사람이라도 다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었다고 호들갑을 떠는 반면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몇 백명이 죽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서구 기독교인들의 반응이란다. 어처구니가 없는 짓이다. 유대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이다. 민족의 구원을 가슴 아프게 바랐던 바울도 인정한 사실이다(롬 2:28, 9:6~8, 갈 6:15).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사라져 버렸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은 더 이상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17.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한 하나님의 원수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들의 후손으로 사랑받는 자이기도 하다(28). 어떻게 한 사람이 원수도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가?

못난 아들이면 그럴 수 있다. 흔히 하는 말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는 경우에 그렇다.

18. 25~32절 사이에 번역상 미스가 있다(개역). 찾아보자.

30절의 '이스라엘에' → '이스라엘의'

19.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지도 않으려니와 버려두신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버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도는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다(32).

20. 어떤 고민이든지 하나님께 가져가면 해답이 나온다. 바울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9:2~3).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변했는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36) 찬양함(33~35): 불의가 득세하는 것을 차마 견딜 수 없었던 하박국이 끝내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여호와와 그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리라' 된 것과 비교해보면 똑같다.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결과적으로 찬양이 터져 나온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삼상 1장의 한나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가 그렇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가져가서 매달리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가 있다.

로마서 12 장

1. 12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

명령형이 갑자기 쏟아진 것: 여태까지 원리를 말했다면 이제는 그 원리에 입각한 실천을 말하기 때문이다. 여태까지 산을 올라갔다면 이제는 내리막길인 셈이다.

2. 그러므로(1절) 무엇 때문에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으니: 지금까지 말한 모든 내용을 요약한 말이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리를 먼저 말하고 적용을 말하는 셈이다.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하는 것은 뿌리없는 나무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의 가슴은 항상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으로 차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삶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3. 본문에 내용상 명령이라고 할 만한 것이 몇 개나 될까? ~하지 말고 ~하라는 표현은 몇 번인가? 갑자기 이렇게 변한 이유는?

37개: 믿음의 원리를 다 말하고 이제는 적용으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위의 질문과 동일하다.

4. 사람을 권면하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침승을 기르는 게 낫지 사람은 못 키우겠다는 푸념도 종종 들을 수 있다. 자녀를 가르치든, 목회자가 되어 성도를 가르치든 간에 바울의 이런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떤 자세?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1):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의 권고대로 살 수 없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3): 위의 표현과 동일하다.

5. 반사회 불참하면 벌금, 게모임도 벌금, 교회 모임도 빠지면 벌금... 이러다보니 생고 부작용이 벌금내고 당당하게 빠지는 일이다. 원래 벌금의 주목적은 빠지지 말라는 것인데, 교회 일도 돈으로 떼우려는 경향이 농후하다. 열심히 치장해서 교회 가는 것보다 집에서 TV만 틀면 예배 볼(?) 수 있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부치면 되고... 이런 경우에 알맞은 바울의 권고는?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1):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몸으로 하는 것이다.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드려야 한다. 삶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제사를 드리려면 침승의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깨끗하게 태워야 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몸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신다. 이것이 예배이다.

가장 가까운 표현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11)'는 것이다.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기도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새벽에 교회까지 와서 잠깐 기도하는 것보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6. 산낙지(산칼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산에도 낙지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산 낙지라고 써야지! 산 제사가 무슨 말인가? 거꾸로 생각해보자. 죽은 침승을 드린다고 죽은 제사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사를 드리면 침승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죽은 제사? 이것도 이상하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죽은 제사 아닐까? 살아있는 채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산 제사일까? 아니면 제사를 드리면 살게 되기 때문에 산 제사일까?

진정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산 제사, 즉 살아있는 제사라고 한다. 그렇다고 제물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다는 의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살았으되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다. 어설픈게 죽은 상태로 설치면 온 집안을 피칠갑할 수도 있다. 목이 뿔 잘린 닭이 뛰어다니면?

7. 영적 예배란 무슨 말인가(1)? 몸을 드리지 않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그러면 몸을 드리라는 말과 영 다른 말인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가 아닌 진정한 제사라는 뜻이다. 결국 몸으로 드리는 산 제사와 마찬가지다.

8. TV 연속극을 열심히 보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사람도 있다.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그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벼운 대화에서도 혼자 빠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관행으로 굳어진 악습이나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구조적인 범죄행위에 역행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때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2): 모든 사람들이 옳다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따르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다. 공부할 시간도 모자라는데 아이들은 만나기만 연속극 얘기다. 지혜로운 아이는 신문의 예고 기사를 읽고도 그런 대화에 끼어들 더란다.

9. 발이 손 노릇을 하려고하고, 눈이 귀 노릇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권하는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3): 이러기 위해서 자신이 발인지, 손인지 분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급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이다. 자신의 분량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분수에 넘치지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4~8절은 3절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는 셈이다. 손, 눈, 발... 할 것 없이 서로 협력하는 관계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 가령, 먹는 행위만이라도 얼마나 복합적인 상호 협력 작용인가! 지체가 바르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허세를 부리지 말고(=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스데반이 순교한 이유가 '일꾼'으로 세워놓았더니 전도하고 설교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분이 있었다. 기가 막히는 성경해석이다. 일이 잘 되도록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자신의 제도적 권위만 세우려는 발상에서 나온 발언이다.

10. 6~8절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열되어 있다. 이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을 하나만 택 하라면 무엇을 택할 것인지 생각해보자.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우면 은사다.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는 일도 은사다: 누군가의 얘기를 진득 하니 들어줄 수 있다면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것이 즐거우면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셈이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감격스럽고 즐거우면 무슨 은사인가? 예언의 은사다. 장래사를 미리 알고, 보고 점쟁이처럼 말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다. 구약의 예언자나 선지자를 보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다. 성경이 완성된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일을 가리켜 예언이라고 한다. 무당이나 점치는 행위가 불교에 들어가서 불교를 이상한 혼합종교로 만든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벌써 기독교 점쟁이도 성업중이란다.

11. 해외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실적이 별로 없다고 해서 선교비를 일방적으로 중단해버렸다.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버렸다. 이것은 끔찍한 범죄행위이다. 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이런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바울은 무엇이라 하는가?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8): 성실함의 원어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됨'을 가리킨다. 단순하지만 꾸준함이 필요하다. 한번 시작했으면 꾸준히 계속해야 한다.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는 생사가 걸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도움을 받는 자를 진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잊어서는 안 된다.

12. 말단 사원의 꿈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고생스럽지 않게 말로만 일해 보는 것일 수 있다. 빙글 빙글 돌아가는 회전의자가 샐러리맨들의 소망을 상징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것도 말로만 시켜먹는 어른들이 부러운 탓이다.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면서 그 꿈을 깨고 있는가?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8): 종이 아무리 바빠도 주인만큼 바쁘지 않다.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다스리는 자리가 보기만큼 그렇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다. 지도자일수록 더욱 부지런해야 한다. 유능한 지도자는 적당히 게을러야 한단다. 이 때의 게으름은 일을 하기 싫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아니라 권한을 적절하게 넘겨주는 것이나 일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지도자 자신의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지혜로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당하게 게을러 보일만큼 지혜로워야 한다는 뜻이지 지도자가 절대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

13.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워보자.

구제하는 자는 ()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으로 할 것이니라(12:8)

성실, 부지런, 즐거움

14. 쉽게 외우는 방법을 찾으라고 머리를 굴리다가 정작 외워야 할 것을 전혀 외우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러 있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외우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9절부터 시작되

는 권면은 심하다. 이걸 어떻게 다 외워?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무엇을 외울까?

사랑(9)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만 있으면 전부 가능한 일이다. 사랑해도 해당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지 찾아보자.

15. 미인계라는 것이 있다. 여자 스파이 혼자서 적국의 중대 기밀을 뽐아내는 것이다. 아무리 요직에 있는 사람에게 접근을 한다고 해도 국가의 1급 비밀을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9) 연애에는 작전이 필요하다. 아직 될 사랑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결혼 생활에서는 더 이상 작전이 없어야 한다. 작전이란 일종의 속임수이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비밀이 있을 수 없다.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과 통하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뜨리기만 하면 술술 풀어 놓고 만다. 같이 지내면서 몰래 훑치는 행위는 엄밀히 말하면 미인계가 아니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천상의 1급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던가(창 18:17)? 그렇다면 부부간에 탄 주머니를 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16. 3-21절을 간단한 세 개의 단어로 요약해 보자.

믿음(3, 6), 소망(12), 사랑(9)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3)는 말씀과 아주 흡사하다.

17. 수없이 많은 권고(14~21) 중에 꼭 하나만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서로 의견을 나누어 보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동료가 승진해서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차라리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것이 쉬울지 모른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작은 교회에서도 얼마나 갈라지고 쪼개지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싸우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어휴!

18. 원수를 어떻게 갚지?

하나님께 맡기라(19-20) 원수를 원한대로 다 갚으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시원하지는 않다. 젊은 날에 배신당한 남자가 나중에, 자신을 버리고 초라하게 사는 여인의 집 앞에 으리으리한 집을 짓고 보관듯이 살았단다. 시원했을까? 자신의 웅혼함에 기가 질렸을까?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가 된다고 적절하게 발산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에 따른 결과다. 그러나 발산하는 것보다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스스로를 다스리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악을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었을 때 진정한 기쁨과 승리감을 맛보게 된다. 연습 삼아서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악으로 악을 이기면 자신도 악이 될 가능성이 많다.

19. 원수에게 먹이고 마시우면 원수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잠 25:21~22). 원수를 갚으라는 말인가 갚지 말라는 말인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요점이다. 이것이 100점이다. 죽어도 원수를 갚아야 된다는 사람에게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한다면 80점이라고 하자. 도무지 선으로 악을 이길 없는 사람에게는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원수를 갚는 길이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행하는 사람은 60점이라고 하자.

우리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100점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60, 70점짜리 답이라도 할 수 있다면 차츰차츰 나아질 것이다. 원수를 도저히 사랑할 수 없으면 원수 갚는 수단으로라도 선을 베풀라는 것이다. 썩 좋은 답은 아닐지 몰라도 자신의 힘으로 원수를 갚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자 결혼한 부부가 '여보'라고 하기가 어려울 경우 연습이나, 장난삼아 해보면 쉽게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다. 도저히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해보라는 것이다. 하나의 방법론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진심으로 존경해서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심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못해서라도 부모를 존경해야 한다.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절대로 잘 하는 일은 아니다.

다른 교해: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표현은 우리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보내던 일과 비슷한 일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여인들도 불을 잘 보관해야 하는데 혹시 불씨를 꺼뜨리게 되면 옆집에서 숯불을 빌려와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다. 끔찍하게 원수를 갚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끄럽게 한다는 뜻이다.

로마서 13 장

1. 우리나라에서 1절 말씀에 가장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잡은 자(김종필, 전두환): 교회를 향해서 이 구절을 인용하며 큰 소리 쳤으니...

2. 일제(日帝)나, 무력으로 권력으로 탈취한 세력도 성경 구절(1)을 인용하여 그 권력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며 복종할 것을 주장한다. 본문에서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자 노릇을 해야 옳은 권력이다(4): 악을 행하는 자는 두려움을 느끼고, 선을 행하는 자는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권력이어야 한다.

3. 권세에 굴복해야 하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나? 직장의 상사에게도 순종해야 하나?

기본적으로 그렇다: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가 되었지만 기본적으로윗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순종의 바탕 위에서 자기 주장이 나와야 한다. 무조건 비판부터 하고 보는 것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다.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법은 지켜야 하고 약속은 무겁게 존중돼야 한다.

4. 3절의 '선한 일에 대하여'라는 표현은 직역이어서 의미가 선명하지 않은 점이 있다. 4절을 참고해서 조금만 의역(수정)을 해보자. 4절의 '가지지 아니하였으니'도 조금 더 자연스런 표현으로 고쳐보자.

선한 일에 대하여 →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없는 권세가 되어야 제대로 굴복하게 된다.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 가진 것이 아니니?

성경을 이렇게 합부로 고쳐도 되나? 합부로 고치는 것은 절대 안 되지만 정확한 의미를 찾는 작업은 항상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번역하는 과정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성경을 번역하는 방식은 크게 보아 세 가지가 있다. 문자적인 번역(직역)은 원어의 단어나 어구를 가능한 한 그대로 번역한다(KJV, NASB). 자유번역(의역)은 문자보다는 그 의미를 살려내려는 번역이다(Living Bible). 역동적 대응번역은 원어의 단어, 속어, 문법적 구문을 번역하려는 언어의 정확한 대응어(그대로가 아니라)로 번역하는 것인데 위의 두 가지 번역의 중간 형태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NIV). 각 방법에 따른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역을 참고해야 한다.

5. 하나님께서 권세자에게 권세를 왜 주셨을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을 이루기 위하여(4): 만약에 하나님을 대신하기보다는 사탄의 대리인으로 여겨질 경우에는? 항거해야 할 근거가 있는 셈이다.

6. 학생이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무서워서 잘 듣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선생님이 좋아서이다.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지는 불문가지다. '위에 있는 권세'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머리를 잘 쓰면(?)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는데 그냥 잘 낸다. 무엇 때문인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보자.

두려움과 양심 때문이다(5):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세금을 낸다. 그러나 성도는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세금을 내야 한다. 서울의 어떤 교회는 교회 부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중계약서 때문이다. 웬만한 부동산 거래에서 이중 계약서는 상식인 게 우리 사회다. 세금계산을 위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다. 교회가 그럴 수 없다니까 땅을 팔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양심 때문에 살기 어려운 세상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

7. 본문에 따르면 권세에 어떻게 굴복하는가?

세금을 잘 내야 한다: 재정적인 힘이 없으면 권세도 별 힘이 없다. 재정을 장악하는 것이 권세를 잡는 지름길이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잘 낸다는 것은 권력을 인정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8. 공짜라면 양젖물도 마신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성도는 공짜를 바라지 말고 줄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그런 예가 어떤 게 있나?

출장 서비스로, 책값(빌려보지 말고), 각종 공연의 입장료... :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떼어먹는 악덕업자들이 적지 않은 모양이다. 그저 부러먹으려는 생각은 아예 말아야 한다. 교회재정을 아낀다는 생각에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 매사에 적절한 값을 지불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경주 최부자 집의 교훈에는 '파장 무렵에 시장에 가지 말고 흥년에 땅을 사지 말라'는 말이 있다. 정당한 값을 주고 물건을 사라는 말이다.

9. 다음은 결혼식 순서지에 실음직한 글이다. 어딘가 어색한 곳을 고친다면?

'양가 친지, 친척, 친구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사랑의 빛을 안고 새 가정

을 이룹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빛 → 빛(8)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른 채 남의 청첩장에서 문구를 그냥 따와서 쓴다고 쓰다보니 틀려 버린 예다.

10. 13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면 ()에 알맞은 단어는?

‘먼세에 (), 형제에 ()을!’

굴복, 사랑

11.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란다(8). 빛지는 사람이 지고 싶어지나?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지 못하는 이유로 이 구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

이 본문이 빛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사랑의 빛만 지라고 강조하는 표현이다. 돈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다. 빌려주지 못할 바에는 그저 주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

12.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계명을 지킨 자이다. 간음죄를 짓는 것도 정말로 남을 사랑하는 것 아닐까? 간음도 일종의 이웃사랑 아닌가?

사랑은 자기 희생이다. 고양이와 쥐를 좋아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희생없이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다.

13.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엄두에 두고 살았다. 누군가가 율법에 어긋난 짓을 하면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다. 한국 사람들은 낯선 사람을 만나면 나이부터 따진다. 젊은 사람이 좀 안다고 나서면, 맞고 안 맞고를 따지기 전에 우선 기분부터 나쁘다. 유교적 영향을 받은 탓이 아닐까? 그러면 성도는 어디에, 혹은 어떤 것에 최고의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랑할까?(8~11) 어떻게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을かを 늘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께의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14.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의 계명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어떤 변화라고 규정지을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의 삶, 즉, 법을 지키는 것, 사랑하는 것, 자식을 가르치는 일, 등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해야 한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5)’ 이상 굴복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굴복할 이유도 찾아보라.

15. 율법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 행하였다고 고백한 어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실망하고 돌아가 버렸다(막 10:20~22). 이 청년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지 10절을 참고해서 설명해보자.

규정의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혹시 규정을 위반한다 해도 율법을 지킨 셈이지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율법대로 다 실천했더라도 그것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다.

16.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씀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충돌이 되면 어느 쪽을 따라야 할까?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해야 하고, 지혜로워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쁘다’고 말해야 한다. 멋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남편에게도 ‘멋있다’고 말해야 한다.

17. 겔 때라(11)? 그럼 깨야지! 깨면 뭘 하지?

옷을 입어야지(빛의 갑옷을 입자, 12) 그리스도인은 항상 종말을 엄두에 둔 자세로 살아야 한다. 5분대기조가 신발을 벗지 않고 출동준비를 한 채 자듯이 밤에도 벅타이를 풀지 않고 주무신 목사님도 깨셨단다. 꼭 그래야 하느냐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런 마음은 갖고 있어야 한다. 예수의 보혈로 씻은 옷으로 부끄러움을 가려야 한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진정한 옷이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좋은 옷으로 치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화과 잎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

18.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구원의 때가 멀어졌다가 가까워지곤 하는가?

이 부분(12장 이후)의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라기보다는 믿는 자의 삶, 즉 성화의 정도를 의미한다(14장의 약한 믿음과 강한 믿음도 그런 의미다). 결국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믿는 자의

삶이 온전하게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율법을 지키던 것과 비교하면 너무나 쉬운 방법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는 말씀과 비교하면 비슷하면서도 믿으라는 의미 보다는 믿는 자다운 삶을 살라는 쪽으로 약간 더 진척이 된 느낌이다.

19. 어거스틴이 방황하며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심하기에 이르렀으나 과거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고 고민하던 어느 날 이웃 아이들의 '집어 들고 읽으라'는 노래 소리에 성경책을 폈는데 본문의 어느 구절을 읽는 순간에 빛이 비치고 사람이 변해버렸다고 한다. 본문의 어느 구절일까?

13~14절: 스스로 그런 삶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능하던 일이 갑자기 가능해졌다. 말씀은 자체가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

20.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대로(14)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등바등 돈을 벌려고 하지 말아야 하나?

본문과 관계없는 질문이다. 육신의 일이란 죄악된 본성(*Sinful nature, NTV*)을 가리킨다. 성경을 이해할 때 자신의 생각보다는 그 단어를 사용하는 기자가 본래 의도한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이 육신이라고 말할 때는 거의 대부분, 육체의 욕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병, 즉 죄 된 본성을 가리킨다.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이나 일터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충성해야 할 곳이다.

로마서 14 장

1.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있는대로 찾아보자.

1) **서로의 견해 차이를 인정하라:** 약한 자도 있을 수 있고 강한 자도 있을 수 있다. 날과 음식에 대한 견해는 다를 수도 있다(2, 3, 5). (그 사람의 견해를)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받으라!(1)

2)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데야...(3, 9)

3) **그를 세울 능력이 있는 주인이 따로 있으니(4):** 사울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가 전형적인 모습이다. 죽일 이유가 충분하지만, 누구나 인정할 뿐 아니라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자신의 손을 대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4)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방법이 다소 다를지라도 마음은 하나, 즉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8).

5)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개인적이다(12).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 실력과 열심을 겸비한 사람을 사소한 일로 시비를 걸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세력을 끌어모아 사람을 매장시키거나 잘라내는 짓을 교회(교단) 내에서도 적잖게 볼 수 있다. 본문의 어떤 표현이 이와 비슷한가? 그렇게 잘라낸 사람이 다른 곳에서 큰 인물로 성장하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3): 해결책은 우리가 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7-8).

3.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두가 다 꼭 같을 수는 없다. 어떤 것은 교리화하여 일률적인 규칙을 만들기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좋은가?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 지니라(5): 자기 나름대로 마음을 정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면 다들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말씀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심대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영 엉뚱한 주장을 한다면 올바른 양심대로 판단하지 않은 탓이다. 이단들이 그렇다.

4.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내가 살아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쩔 것이냐? 그러므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럴 듯한 주장이지만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죽은 이후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8),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9)

5.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완전히 개인적인 입장이 된다. 잘못된 일에 대하여 'OO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라든가 '△△가 그것은 틀린다고 하던데요' 라는 말은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다. 오로지 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은?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12).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아무런 도움도, 보증도 될 수 없고, 스스로 판단하고 서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한다.

6. 형제를 비판하면 결과적으로 형제 앞에 무엇을 두게 되는가?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13): 그래서 형제를 근심케 하고 나아가 망하게 한다(15).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목숨을 버리고 구해놓은 형제를 다시 물에 빠뜨리는 결과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7.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형제를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족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당시에 주로 어떤 문제로 형제를 판단한 것 같은가?

날(절기), 언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식물(정하다, 부정하다), 본질적인 곳에서 부차적인 곳으로 관심이 옮겨가고 있는 셈이다.

8. 교회 다니는 친구가 담배를 피운다. 본문의 교훈대로라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1) 담배 그 자체는 아무 것도 아니다(14, 17, 20).

2) 담배 피우는 그 친구를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셨다(15).

3) 담배가 인생을 망치진 않는다. 그러나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망하게 할 수도 있다(15).

9. 교회 안에는 아름다운 것이 대단히 많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할 때는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 그저 욕에 묻은 티 하나를 보고 비방하는 법이다. 이런 티마저 없는 삶을 살자.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16: 너희 선한 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때문에)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정말 사소한 잘못으로 평생 쌓은 업적이나 삶이 한 순간에 무너지는 일은 너무나 흔하다.

10. 날이나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연약한 형제를 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 방법을 찾으라(19): 적어도 형제라면 뒤에서 비난하거나 나아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일보다는 어떻게 해서 덕을 세울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인간사에 이런 사소한 문제로 크게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흔한가! 부부싸움의 원인도 대부분 이렇다.

11.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하지 말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를 세우고, ()과 ()를 주는 것이냐를 먼저 생각하라.

의, 평강, 희락(17)

12. 유대인들에게는 부정의 유무를 가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부정한 것이다(막 7:18, 19)'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의 심한 반발을 받았다. 만물이 다 정하다고 하는 말씀에 따르면 식물 자체가 부정한 것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부정한 것일까?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21)

13. 포도주는 식사 때 물처럼 마시던 것인데 고기도 먹지 말고 포도주도 마시지 말라는 말인가? 그럴 자유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그것은 자유다. 만약에 그것이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는 말이다. 무조건 먹지 말라가 아니고,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합치되어질 때 가능하다.

14.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도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어 주었는가?

약자의 편을 든 것 같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편을 들었다. 약한 형제를 용납하고 세우려는 노력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20) 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15.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성과 그 판단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겸비한 사람은 정말 복되다' 이런 말씀은 몇 절인가?

22: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는 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16. 하나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시나?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오직 인간이다. 인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이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다.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사업이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17.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 인간의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몇 십년 동안 헤어졌던 형제나 이산가족이 만나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면서 마음껏 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소리가 나온다. 성도가 모인 교회에서도 서로 비난하는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다. 인간적이라면 그럴 수 있지만 말씀대로 사는 성도라면 형제를 보고 이기적이라거나 게으르다거나 바보같다는 말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다(15): 실제로 그런 비난이 맞다고 해도 주님께서 그런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이 정도는 돼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 아닌가?(18)

18. 먹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김으로 실족케 하였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한탄하실까?

나의 희생(죽음)이 그 정도 가치 밖에 되지 않더냐? 20절의 '하나님의 사업'이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사역이다. 이것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식물로 망쳐 버렸다면 얼마나 원통스런 일인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다'(15)는 것도 답이 될 수 있으나 한탄의 강도가 약해서 20절을 인용한 것을 정답으로 삼는다.

19. 본문에서 적절한 구절을 인용하여 수련회 주제를 뽑아보라.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5) 그 외에도, '마음을 확정하라'(5),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8), '아름다운 형제 사랑'(21) 등등이 가능할 것이다.

20. 본문을 요약한다면 연약한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1), 판단하지 말라(3)는 것이다. 아무리 봐도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는데 그러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9)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이기 때문이다(15) 남의 하인이기 때문이라는 말도 맞다. 그러나 앞의 두 가지 표현보다 느낌이 약해서 정답에서는 제외한다.

로마서 15 장

1. 열렬히 연애하던 사람들도 결혼을 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단점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 하더니 급기야는 단점 투성이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람이 어째 그 모양인가?' 하면서 싸운다. 그런 사람인 줄 알지 못한 것이 자신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원망하면 안 된다. 서로에게 완벽한 상대를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결혼 전에야 지지고 볶더라도 일단 결혼했으면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노력은 포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떡하란 말인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1) 상대방의 부족함을 발견하면 내가 보충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것을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이다. 아내나 남편을 무시하면서 자신을 우월한 존재로 여기는 것은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부부 사이에서 이런 훈련을 쌓아서 드디어 이웃에게까지 이런 여유를 보여줌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이다(2). 반면에 흔히 하는 말로 '한 사람이 참아야 하거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언젠가 크게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1) 결혼해서 싸우는 근본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이기적인 자기사랑일 때가 많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3).

2.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기쁨을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 눈으로 보면 타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도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봉사자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결과도 다르지만 기쁨의 질도 다르기 때문이다. 믿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겠지만 본문의 표현으로 말해보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 위하여(2) 법에 따라서 사는 사람은 '최소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륜이나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도는 그 정도를 넘어서야 한다. 법이나 사람의 도리를 따지기 전에 덕을 세우는 일인가를 먼저 따지는 정도는 돼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것 아닌가! 최소한 그렇게 노력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5).

3.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웃을 만나면 속에 천불이 나기도 하는 데 어떻게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한다는 말인가? 다른 이웃이라면 몰라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음을 믿는 믿음 위에서 가능한 일이다: 주님께서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 온갖 비방을 다 받으셨음(3)을 기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3, 5, 7).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다'는 뜻이다. 은혜없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다. 예수님의 인내를 본받는 것도 은혜없이 불가능하다.

4.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4).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무엇이 보일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5), 소망의 하나님(13) (혹은 인내와 소망, 4절) 구약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 중에는 구약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두려운다는 뜻이다.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인식하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바울처럼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인내하시고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속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다. 인내와 소망이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지름길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얼마나 참으셨는가? 대답할 말이 별로 없다면 성경을 다시 배워야 한다. 예를 들면, 신 32:15-26에서 특히 마지막의 '하셨으나' 라는 표현에 주목하자.

5.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런 인간은 형제로 삼을 수 없다!' 이런 말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과 비교해 보라(7)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자녀로 형제로 받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감히 그런 소리를 못할 것이다. 언제 우리가 그럴만한 가치가 있었느냐를 생각해 보라. 그래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 그 분이 우리를 위해서 종이 되셨다(8).

6.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수종자(주종자)라는 말은 할례받은 자들을 섬기는 자였다는 말이다. 자신을 주심으로 그들을 섬긴 결과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에게는 약속을 견고케(8)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긍휼을 베푸심이다(9-13) 다시 말하면 유대

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종이 되셨다는 것이다(10). 열방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10). 여기서는 아무래도 이방인 쪽으로 비중이 기울어진 느낌이다.

7. 8~12절은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하는 것이다. 앞의 내용에 추가된 것이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언된 대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연약한 형제를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믿는 형제와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겠느냐? 1~2절의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3~12절까지 길게 설명하는 중이다. 7~12절은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으라는 것이고, 13절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으라는 것으로 4절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8. '내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라는 느낌을 주는 단어를 하나만 찾으시오.

14절의 '스스로': 이 문장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나도 확신하노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노파심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한다. 로마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을 세워주는 말이다.

9.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이것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16): 이방인을 제물로 삼으면 되나? 강조점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제물을 삼는다는 뜻은 '나 대신 희생시키는 것'이지만 여기서 제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으로 만들어 드린다는 뜻이다.

10.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하다. 자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고전 13:4). 그러나 가끔 바울은 자랑을 했다. 무엇을 자랑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17~18): 더러 자랑하고 했지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후 11:30).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후 12:9)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신 일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일만(18) 자랑했다.

11. 말과 일, 표적과 기사는 누가, 왜 행한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18): 실제로 행한 사람은 바울 자신이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성경이 가진 독특한 사상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나서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동역자 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신다. 설교자라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라는 인간을 통해서 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신다.

12. 도심지에는 한 건물에 여러 개의 교회가 들어서기도 한다. 신주택지가 들어서면 여러 개의 교회가 주변에 우후죽순처럼 생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라'는 바울과 사상이 다른가?

사상은 같은데 교단이 다르다고 대답할지 모른다: 교단이 수없이 갈라진 것이 비극의 원인이다. 같은 교단이라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지만 교단이 다르고 노회가 다르면 전혀 규제가 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욱 소중하다. 남의 교인들을 끌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잘 양육하는 차원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믿는 자들을 끌어모으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 시대에 '남의 터'라고 불릴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13. 일루리곤이 어디인지 평소 실력으로 짚어보자.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예루살렘과 대비되는 곳이며, 아직은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였으므로(22) 로마를 넘어가지 않는 곳이다.

아드리아해 동쪽, 마케도니아의 위쪽과 서쪽,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이다.

14. 바울은 필요에 따라 구약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있다. 놀랍다! 우리의 성경실력과 비교해 보자. 우선 구약의 어느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가?

시 69:9(3절), 삼하 22:50(=시 18:49, 9절), 신 32:43(10절), 시 117:1(11절), 사 11:1(12절), 사 11:10(12절), 사 52:15(21절): 시편과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실력이 부럽기만 하다. 성도에게는 필요할 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 우리가 약한 부분이 시가서, 선지서 쪽인데...

15. 자랑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랑할만하다.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도대체 사역을 어떻게 했으면 일할 곳이 없단 말인가? 어디까지 가려는가?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한다. 복음이 거의 모든 지방에 전해졌다. 그만큼 널리,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다.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할 만큼 튼튼하게 세운 후에 또 다른 개척교회를 시작하려는 모습이라고 할까?

서바나(스페인: 지금처럼 명확하게 국경이 그어진 때가 아니므로 꼭 같지는 않을 것): 로마를 거쳐 소위 땅끝까지 가려는 열망이다.

16. 바울이 아시아(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일은 주로 안디옥 교회가 후원했다. 이제 서바나로 가는 일은 로마교회가 후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냥 가면 되지 꼭 후원은 받아야 하나?

아무리 사명감에 넘쳐도 인간은 인간이다. 하나님도 사람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물며 사람이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잘 하는 일이 아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기도의 후원없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혼자 할 수 있겠다 싶어도 뒤에서 후원하는 동역자가 없이는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17. 바울은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는 선교사가 되고 싶은 셈이다. 후원을 받기 전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사귄(24):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로마교회가 넉넉히 후원을 할 것이 틀림없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며 교제를 나누는 사귄을 바탕으로 후원을 해달라는 것이다. 돈보다 교제가 먼저다. 교제없이 후원하는 것은 은혜없이 봉사하는 것처럼 메마른 일이다.

18.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금은 다른 일이 있어서 가지 못한다. 다른 일이란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며 그렇게 소중한 일인가? 구제 헌금을 전하는 일(26~27)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헌금을 많이 하도록 당부했다(고전 16:1~4, 고후 8:2).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도들의 어려움을 도우려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를 하나로 묶으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함께 상종할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 하물며 그들의 동정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이들의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함께 형제된 것을 인정하는 셈이다. 바울의 생각에도 이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었다(31). 이 헌금을 전하면서 각 교회의 대표들을 동행시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만나게 했다(행 20:4). 이 때 엄청난 금액을 예루살렘에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을 억류한 벨릭스가 내막도 모른 채 돈을 바라고 바울을 자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이다(행 24:26).

19.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들은 이방인들은 정말 유대인에게 은혜를 입었는가? 신령한 빛을 쬔다는 말이 맞는가? 우리는 이런 빛을 지고 있지 않은가?

유대인들이 이방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것도 특별한 지원을 한 것도 아니다. 어쩌면 수고는 바울이 다 했다. 그러나 복음이 이들을 통해서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방인 교회는 이들에게 빛을 쬔다고 말한다. 하물며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서방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더 큰 빛을 지고 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20. 로마로 갈 때 바울이 가지고 갈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29)이란 무엇일까? 설마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닐테고...

이들의 만남이 충만한 축복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말이다: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게 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일테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축복일 것이다.

21.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

대적하는 유대인들에게서 구원받도록: 도처에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있었다(행 20:3, 21:11, 27~32).

헌금을 잘 전달하도록: 액수도 많았지만, 유대인 성도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짐승처럼 생각하는 마당에 그들의 헌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바울에게는 그들이 이방인 신자의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을 같은 형제를 응답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로마에 가서 편히 쉬는 것: 바울의 쉼이란 일을 접어두고 육체가 쉬는 것을 말함이 아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전하는 그것이 편히 쉬는 것이다. 가만히 쉬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다. 결국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하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지 않았다.

로마서 16 장

1. 웬만한 경우에는 이름만 보아도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쵸프,’ ‘~스키’라면 소련 사람이고 ‘왕~’이면 중국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들 이름이 ‘새~’이면 부모가 운동권 출신일 가능성이 높다. 끝순이, 말순이네 집에는 여자가 많은 모양이고 주은, 하은, 찬미, 요섭, 시찬... 등은 기독교 냄새가 물씬 나고 ‘법설’이라면 어쩐지 불교를 연상시킨다. 본문에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만 낯설다. 외국인의 이름이라서 우리에게만 어려운 일이지만 아는 사람은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 있다.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이 교회 구성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

온갖 사람들이 다 혼합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고 노예 혹은 전직 노예들이란 점이다.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다. 로마 시민권자와 열등 민족, 자유민과 노예들, 남녀가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부자와 가난한 자, 대학교수와 무학인 농부가 어울려 하나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쉽게 있을 수 없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남녀가 유별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자 지금 입장에서 보면 우스운 일들이 많았다. 특히 예배당 가운데 검은 막을 쳐두고 남녀가 따로 앉아서 서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단다. 그 때도 불신자들은 상(?)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로마 교회는 어쩌면 이보다 더 하다.

암블리아(8), 스다구(9), 아벨레(10)란 이름은 황제의 가문에서 많이 사용한 이름이고 우르바노(9),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14)는 일반적으로 노예의 이름이다. 버시(12, *Persida*) 페르시아 여인이란 뜻인데 포로로 와서 자유민이 된 사람일 것이다.

빌롤로그와 올리아(15)는 황제 가문의 노예 부부로 추정되고 네레오와 그 자매는 빌롤로그의 아들, 딸로 추정된다.

아리스도볼로(10): 헤롯의 손자, 아그립바의 형제로 48, 49년에 이미 사망했다. 그의 권속은 대부분 노예들(대표적인 사람이 헤로디온)이다.

나깃수(11): 클라우디우스 황제시절에 권력을 휘두른 자, 권모술수에 능하고 극악무도한 자였다.

2. 여자를 다 찾아보자.

뢰비, 브리스가, 마리아, 루포의 어머니, 네레오의 자매(빌롤로그의 아들, 딸로 추정): 확실하다.

버시(*Persida*: 페르시아 여인): 원어를 보면 확실함.

(유니아), 아벨레, 드루배나, 드루보사(자매?), 올리아(빌롤로그의 아내로 추정)

3. 총각집사란 말이 있었다. 총각으로 집사가 되었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니 대단한 사람이란 뜻이다. 로마 교회에 총각집사에 비길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뢰비: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란 곧 여집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자가 이렇게 대우받는 일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여자를 가장 먼저 천거하는 것은 그럴만하기 때문이다. 아마 로마서를 전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4. 학교나 정당의 후원회장이란 인품보다는 돈으로 하는 것이다. 여자가 보호자로 불리는 예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뢰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신실하면서도 재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보호자란 말은 후원자, 구원자, 조력자란 뜻이다.

5. 여기에 적힌 이름이 교회 후보의 십일조 명단이라고 가정하고 본다면 어색한 것은?

브리스가(아굴라): 남편 이름이 뒤로 간 것이다. 로마시대 여성의 지위가 지금보다 높은 것이 아니다. 아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천대받았다. 그럼에도 부인의 이름을 먼저 말하는 것은 그만큼 브리스가가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사역했음을 말한다.

6. 개척교회를 시작한 목사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람은 제일 처음으로 전도 받아서 교인이 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일까?

에베네도: 별로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않았을 지라도 처음 복음을 받은 사람은 잊을 수 없는 법이다. 개인적으로는 전도사가 된 이후 나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 부족한 사람을 그래도 전도사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7. 개척교회의 어려운 점은 목사가 말씀만 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부분까지 직접 처

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운전, 건물 관리, 법률관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목사보다 더 능력 있고 열심도 있는 성도가 타처에서 이사와서 사역을 도와주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그런 사람인가?

안드로니코와 유니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답을 할 수도 있으나 친척(유대인)이고, 사도들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았으며,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해서.

8.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특별한 명성을 얻게 된다. 도저히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당하게 이겨내었다면, 특별한 은사를 얻었다면... 로마 교회에 그런 인물이 있었다면 누구일까?

아벨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이라는 표현이 이런 암시를 준다. 이 이름은 황제의 가문에서 많이 사용한 이름이다.

9. 아버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준 것 때문에 유명하게 된 사람은 누구인가?

루포: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책인데 막 15:21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는 말씀이 있다. 로마 교회의 루포를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면 '어떤 시골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10. 로마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대형집회를 열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 여러 개의 가정 교회가 하나로 연합한 형태이다. 본 장은 최소한 몇 개의 가정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가?

3개 (5, 14, 15)

11. 어떤 사이비 목사가 여자 신도와 키스하다가 들켰다.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성경 말씀대로 했다는 것이다(16). 그런데 우리는 왜 안 그러지?

문화적인 배경에 따른 말씀은 그 의미를 존중해야 한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말이다. 황제의 가문의 사람이 노예출신을 형제로 받아들이며 입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양반집 총각이 상놈집 처녀를 사랑한다? 과거 우리나라 같으면 동네가 뒤집어 졌을 것이다. 복음 안에서 그것이 가능했다는 말이다.

12. 마무리하다가 불현듯이 생각이 난 모양이다. 급하게 무엇을 당부하는가(17-19)?

사단(이단)을 멀리하라: 이들의 두 가지 특징은 교훈을 거스르는 것과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며,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13. 양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샅만 바라는 목자를 가리켜 샅꾼이라고 한다(요 10:11~12). 로마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 말인가?

그런 모양이다. 자기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 아니 사람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자신의 이익추구를 최대의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다. 잘 살려서 이런 자에게서 떠나라고 한다.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 교회를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 교제를 끊으라는 말이다. 아마 이런 일을 돕기 위해서라도 바울은 로마에 빨리 가고 싶었을 것이다.

14. 요긴한 말을 급하게 하는 와중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19). 칭찬을 잘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재능이다. 각설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혜로워야 하나 미련해야 하나?

'집에 갈 차비를 얻으러 다니는 분들이 예전에는 서울, 부산이더니 이제는 유일한 혈육이 제주도 에 있단다.' 아예 비행기 샅을 내라는 말이다.

지혜롭게 속지 않아도 별로 얻는 것이 없고, 미련하게 속아도 큰 손해는 아니지만 기분은 묘하게 떨떠름하다. 남을 속이는 능력이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는 무능한 반면에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유능하다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지혜로운 것 아닐까? 너무 약삭빠르고 똑똑하지 말자. 미련하게도 적당히 속아주자. 그러나 그것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예민해야 한다.

15. 지혜로우면 지혜롭거나 미련하면 미련하지 어떻게 지혜롭다가 미련해질 수가 있을까? 정말 예리하고 날카로운 사람이 때로는 바보짓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따뜻한 지성을 가졌을 때: 지혜도 있지만 사랑도 있을 때에 가능하다! 이성적이고 예리한 사람은 차가울 때가 많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냉철하지 못할 때가 많아서 미련한 짓을 가끔 한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되 연약한 성도를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사랑도 갖추라는 말이다. 이단을 구분해내는 일에는 지혜로워야 한다(17). 그러면서 미련한 구석이 있어야 한다. 새신자를 섬기는 일, 바보짓을 하는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일이 그것이다!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슷하다.

16. 서두에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 서두의 이 인사가 마무리 할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20, 21) 처음 인사나 마무리 인사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평강과 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한 평강과 은혜는 오직 하나님을 말미암는 것이다.

17. 웬 문안인사가 이렇게 기나? 대충 끝내지 않고?

성도간의 교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예배만 드리고 급히 빠져나가도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별 일 아닌 것 같지만 함께 음식을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는 것도 대단히 소중한 일이다. 모르는 식구가 있으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자신을 소개해야 한다.

18. 바울의 편지를 대서하는 더디오의 이름은 ‘셋째’, 형제라 부르는 구아도의 이름은 ‘넷째’라는 뜻이다. 이름이 왜 이 모양인가?

짐작컨대 이들도 노예출신 아니었을까? 로봇이나 죄수를 일호, 이호 하듯이 불리던 이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들을 기꺼이 서로 용납하며 교회를 이룬 것이 위대한 일이다.

19. 복음을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설명한다(25). 이것을 좀 더 간략하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나?

비밀의 계시(26) 복음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알려진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비밀(엡 3:4, 3:9, 5:32), 경륜(엡 3:9, 골 1:25, 딤후 1:4)이라고 표현하기를 좋아했다.

20. 나의 복음이라(25)? 너무 건방진 표현 아닌가? 성경의 어느 누구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진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만 했다.

바울도 복음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자신이 수종들고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이란 뜻이다(롬 2:16). 자신이 전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수의 복음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21. 로마 교회에 이렇게 긴 편지를 쓰는 것이나 자신이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26) 하나님의 비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좇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것’이다. 이 비밀 속에 부록같이 자신의 수고도 포함되어 있다고 믿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비밀의 계시를 좇아 된 것이니...’(롬 16:25~26) 죽을 병에 걸려 희망이 없던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명약을 발견한 감격이다! 바울은 이 약을 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온 세상을 뛰어다니 셤이다!